

III

현지조사 자료

3.1 철원군 지역

3.2 포천시 지역

3.3 연천군 지역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3.2 포천시 지역

표 1 <포천지역 답사 일정표>

일자	시간	지역	장소 및 주요 답사 지역	제보자
7월 31일	09:00-11:00	중1리	김한길씨 댁	김한길(82) 김원구(75) 노인회장(78)
	12:00-15:00	냉정리	냉정1리 이장댁, 냉정2리 마을회관	이풍업(81) 박성원(58세)
	16:00-18:00	사정리	마을회관	임정묵(81) 김영환(71) 이정숙(75)
8월 1일	09:00-12:00	중리	이우형 향토사학자 자택, 곧은여울(영로교)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이우형(51)
	09:30-10:30	자일4리	자일4리 마을회관, 화적연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이기환(82) 강대용(81) 김인식(82)
	10:30-12:00	소회산리	소회산리 마을회관, 멍우리 협곡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안성구(79) 최응호(82) 정근모(77) 오명구(53) 이옥선(70)
	13:00-15:00	운산리	운산리 마을회관, 구라이개울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정운교(58) 임용호(79) 왕임순(79)
	13:00-15:00	운천4리	운천4리 마을회관, 구라이개울 등 인근 탄강 지역.	이덕현(80) 김진익(76) 신동화(61) 임득재(69) 한상덕(55)
	15:00-17:00	대회산리	대회산리 이장 자택, 비둘기낭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최남규(53) 전석배(77) 전천배(71)

3.2.1 관인면 냉정리(冷井里)

<제보자>

이풍업(81): 냉정1리 노인회장, 원래 고문리 사람으로 6·25 때 철원을 거쳐 평강군까지 피난을 나갔다가 고문리, 부곡리, 냉정리 일대에서 살았음.

박성원(58세) : 냉정1리 이장



(1) 유래 및 생활

1) 유래

냉정리는 본래 강원도 철원군 관인면의 한 지역인데, 찬 우물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이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찬 우물이 열 집에 하나씩은 있었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냉정리는 한탄강의 물줄기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굶이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냉정리는 1895년에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12년 행정구역으로 연천군 관인면 냉정리이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냉정리 일부를 탄동리에 넘겨주고 고령리 일부를 병합하여 냉정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 지역인 냉정리 전역이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가 6·25 때 실지를 수복하여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이 회복되었다. 1983년 포천시에 편입되어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가 되었다.

냉정리는 관인면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며, 서쪽 경계와 남쪽 부분은 나지막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지역은 바둑판형 논으로 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다. 북쪽 경계 부분에 냉정 저수지가 있고, 소규모로 2개의 용담(상하) 저수지가 위치한다.

한편, 냉정리의 제보에 따르면 한탄강의 유래에 대해 “(궁예가) 건너가지 못해서 한탄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관인면 냉정리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와 한탄강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옛날 궁예의 슬픈 전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다. 아마도 이러한 역사적 내력이 만든 유래라고 추정된다.

(2) 마을의 설화

1) 궁예와 관련된 왕재-말등소 전설

왕재(왕쟁이나루)와 그 아래 말등소의 지명 유래는 궁예, 정확히 말하면 궁예가 왕건에게

패배하는 역사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먼저 왕재는 궁예가 왕건에게 패해서 도주하다가 한탄강을 넘은 곳이라고 한다. 왕재 아래에 ‘말등소’라는 소가 있는데, 궁예가 왕건에게 쫓길 당시 말을 타고 가다가 쉬어간 곳이라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궁예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너무 힘들어 이곳에다 똥을 쌌다고 하여 말똥소라 불리우기도 한다. (포천시청 - 한탄8경 참조)

여러 정황상 왕재는 냉정리와 한탄강을 마주하고 있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주민이 제보한 왕정낭(군탄리 지명유래 참조)과 같은 곳으로 추정된다. 왕정낭 역시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 도주하다가 한탄강을 뛰어넘은 곳이기 때문이다.

(3) 지명 유래

1) 샘소: 신흥동 앞에 있는 들 옆의 한탄강 지역이다. 사계절 수량이 변하지 않는 이름난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도 관인면의 상수도원이 되고 있다.

또한, 지금은 포천시에서 정한 한탄강 8경중 1경에 속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한탄강 물줄기 중 가장 멋진 굽이와 많은 여울이 몰려있는 곳으로 직탕폭포의 힘찬 물줄기도, 대교천현무암협곡의 물도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어 함께 어우러져 있다. 현무암 협곡의 길이가 약 3km 펼쳐져 있으며 샘소 인근은 현무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 경관이 뛰어나다.



그림 3 한탄 8경으로도 지정되어있는 ‘샘소’의 모습

2) 대교천 현무암 협곡 : 대교천 현무암 협곡 역시, 포천시에서 정한 한탄강 8경중 제2경에 속해있어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협곡 양측절벽 현무암의 절대연령은 약 27만 년 전에 분출한 용암의 역사와 같이 한다. 협곡의 절벽 곳곳에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아름다우면서 기이하게 분포하고 있다. 현무암 협곡의 총 길이는 약 1.5km이고 협곡의 깊이는 약 20~30m에 달한다. 마치 1.5km 구간은 가히 한국의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릴 만하다. 포천의 대교천은 한탄강 비경의 하나인 고석정과 연결된다.¹⁾

1)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경관이 수려하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천연기념물 제 436호로 지정되었다. 대교천은 한탄강의 지류로 계곡이 좁고 깊어서 협곡이라고 하며, 총 길이는 약 1.5km 이다. 협곡의 폭은 25m~40m, 높이는 약 30m에 이르는 하상지형으로 다양한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다. 협곡 양측 절벽 추가령 현무암의 K-Ar법(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에 의한 절



그림 4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의 안내판



그림 5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의 빼어난 주상절리

- 3) 왕재(왕쟁이나루): 샘소와 말등소 사이에 있는 나루터이다.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건너려다 못 건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또는 건넜다고 해서 왕재이 나루라고도 한다.(냉정리 마을의 설화 참조)
- 4) 수래너머 고개: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수레를 끌고 넘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
- 5) 귀영소(귀웅소): 바닥이 소 여물통(귀웅)같이 생겼다고 한다. 독바위소 옆에 있는 소이다.
- 6) 서진계: 귀영소 바로 위 100m 쯤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배나루터이며, 해방 직후 일본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길을 건넜다고 한다.

대연령은 약 27만년 전에 분출한 용암이 최소한 3번의 분출 단위를 보이는 추가령 현무암으로 구성되며, 한반도 제4기 지질과 지형 발달을 이해하는데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협곡의 양쪽 벽을 이루는 현무암 용암층의 두께가 매우 두꺼워서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수평 방향으로 쪼개진 판상절리, 부채꼴 모양의 방사상절리 등 여러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대교천 현무암 협곡 내에는 과거 무당들의 제사지였다고 전해 내려오는 무당소가 위치하며, 다른 지역에서 관찰하기 힘든 절리인 방사상절리는 부채살이 퍼진 모양과 유사하다고 하여 부채바위라 불리운다. (포천시청 - 한탄8경 참조)

- 해방 직후 미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들은 나라를 침략한 죄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치욕을 당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얼씬도 못하고 몰래 몰래 피해 다녔는데, 그때 일본인들이 서진 계라는 나무터를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도 두 명이나 있었는데 걸을 수가 없으므로 수레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가 가득했다고 한다. 해방 이전까지 지주 노릇을 하며 깔끔하게 살던 그들은 해방이 된 후 이처럼 힘든 삶을 살게 된다.

7) 장독바위: 국사봉 기슭에 있는 바위이다. 모양이 장독처럼 생겨서 지은 이름이다.

8) 용대가리: 냉정1리에 있는 용처럼 길게 늘어진 야산이다. 도로를 내기 위해 중간 부분, 즉 용의 허리 부분을 깎았는데, 제보자(노인회장)에 의하면,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안 좋다고 하여 결국 굴다리로 이어졌다고 한다.

9) 봉화산: 인정동 뒤에 있는 높이 240m의 야산으로 봉화대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에 따르면 봉화산은 지리적으로 철원 일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봉화대를 놓았다고 한다. 봉화산의 높이를 고려하면 철원 일대가 다 보였을 리는 없으나 지리적으로 포천에서 철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현재 봉화대는 터만 남아 있다.



그림 6 봉화산 정상의 모습

10) 노리골(노루골): 개간되기 전에는 이곳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11) 용담: 천막동 남쪽에 있는 못이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기 위하여 머물렀던 못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말등소 아래에 위치한다.

12) 말등소: 아랫찬우물 동남쪽에 있는 소이다. 모양이 말 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13) 냉정(冷井: 웃찬우물): 냉정리에 있는 마을로 아랫찬우물과 구분하여 상냉정(上冷井) 또는 웃찬우물이라고도 부른다. 어느 곳을 파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매우 차고 시원한 식수가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 냉정저수지(冷井貯水池): 관인면 소재지에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방향의 봉우재 바로 너머에 있는 넓은 저수지로 포천농지개량조합이 관할하고 있다. 냉정리에 있는 저수지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낚시터로 유명하다.²⁾



그림 7 냉정저수지

15) 놀여울, 새말, 신흥동(新興洞): 냉정저수지 남쪽 마을이다. 여울이 있어서 놀여울이라 하였다고 하며 새로 생긴 마을 이어서 새말 또는 새로 힘차게 발전하라는 뜻으로 신흥동이 되었다고 한다.³⁾

16) 하냉정(下冷井: 아랫찬우물): 찬우물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찬 우물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7) 양짓말: 능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 바른 곳의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8) 오류골: 찬우물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오리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아서 오류골이라 불린다. 어느 쪽 마을이라도 그 거리가 5리가 된다고 하여 달리 오리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19) 용담동(龍潭洞): 운천리 팔호 마을에서 동북쪽으로 보이는 한탄강 건너 마을이다. 용이 승천하기 위해 머물렀던 연못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그 연못은 있으나 물이 없다.

20) 인정동(仁井洞: 인경동): 찬우물 동북쪽에 있는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관인면의 “인”자와 냉정리의 “정”자를 따서 또는 인정이 많다는 뜻으로 인정동이 되었다고 하며 마을

2) 냉정 저수지는 홍수 예방과 냉정 평야의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22년 10월 4일에 착공하여, 1945년 12월 31일에 준공하였다. 냉정 저수지의 수계는 수일천에서 명덕천까지이다. 수혜 면적은 333.8ha, 유역 면적은 5.2ha이다. 총저수량은 77만 9800톤, 유효 저수량은 77만 4900톤이고, 사수량은 4,900톤이다. 둑의 길이는 1,310m이고, 둑 높이는 6.6m이다. 한발 빈도는 10년, 홍수 빈도는 200년이며, 홍수 면적은 36.8ha이고, 만수 면적은 34.5ha이다. 둑 쌓는 형식은 필댐이며, 둑의 체적은 1만 8144m³이다. (한국향토문화대전)

3) 이하의 내용은 『포천의 지명유래집』(포천문화원 편, 2006.)에서 발췌하였다.

주위가 모두 산으로 막혀 매 달린 모양과 같다고 하여 인경동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21) 천막촌(天幕村: 포막동): 인정동 남쪽에 있는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6·25사변 수복 후 피난민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었기 때문에 천막촌 또는 포막동이 되었다고 한다.

22) 배낭구모통이(이목동 梨木洞): 아랫찬우물에서 윗찬우물로 가는 모통이 마을로 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일명 이목동이라고도 부른다.

23) 돌서거터: 윗찬우물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24) 보리모통이: 상냉과 하냉 사이의 마을로 별판에 나가는 모통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25) 느르벌: 포막동에서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드르니로 건너가는 나루터이고 별판이다. 지금은 래프팅 시설도 있다.

26) 아랫들(下坪): 찬우물 아래쪽에 있는 들이다. 마을 아래쪽에 있다고 하여 위치상 붙여진 이름이다.

27) 용담들: 용담 앞에 있는 들이다. 용담 앞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8) 윗들(上坪): 찬우물 위쪽에 있는 들이다. 마을 위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9) 중평(中坪): 상평과 하평 사이에 있는 들이다. 들 과 들 사이에 있으므로 위치상 붙여진 이름이다.

30) 옷나무골(漆木洞): 아랫찬우물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옷나무가 많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31) 골논골: 새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골논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2) 독작골: 옷나무골 어귀에 있는 골짜기이다.

33) 뒷골: 용담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4) 미나지골: 상투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5) 복귀골: 미나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6) 불당골: 옷나무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7) 상투박골: 상투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상투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8) 서당골: 윗찬우물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9) 노적봉: 오류동 마을 앞의 논 가운데 있는 산이다.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것과 같은 모양 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40) 매장골: 서당골과 인접한 산이다. 옛날에 매를 날려 사냥을 하던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41) 절골: 장독바위 동쪽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2) 다닥개: 찬우물 남쪽에 있는 개울이다. 돌이 다닥다닥 솟아 있어서 다닥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43) 솔청지: 다닥개 북쪽에 있는 개울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44) 독가마소: 냉정리 포막동에 있는 소이다. 모양이 독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45) 능골: 찬우물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로 누구의 묘인지는 모르나 큰 무덤이 있어서 능골이 되었다고 한다.

46) 모래소: 냉정리 포막동의 한탄강에 있는 소이다. 모래가 많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47) 비둘기낭: 하평 앞에 있는 낭떠러지기로 비둘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48) 상투바위: 냉정리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상투처럼 생겨서 지은 이름이다.

49) 오류골 뒷고개: 오류골 뒤에서 탄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오류골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0) 찬우물고개: 찬우물에서 용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찬우물의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51) 통수보: 말등소 북쪽에 있는 소이다.

52) 탕건바위: 상냉 앞의 산 아래에 있는 바위이다. 모양이 탕건처럼 생기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4) 6.25 경험담

1) 할아버지의 6.25전쟁 이야기

제보자가 6.25를 만난 것은 그의 나이 16세 때이다. 그는 원래 군남면에 있는 군남소학교를 다녔는데, 삼촌이 순사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하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모님은 하마터면 정신대에 끌려갈 뻔하였으나, 삼촌의 도움으로 모면했다고 한다.

소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되었다. 다행히 인민 치하에서는 큰 보복 없이 생활하다가 전쟁 때 가족과 함께 평강군 회양까지 피난을 가게 된다. 철원 양지리를 지나 평강군 쪽 사기막

고개에 큰 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족이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평강군 회양의 중골이라는 마을로 다시 피난을 가서 며칠 묵고 있을 때, 제보자 혼자 고향에 가겠다고 길을 나섰다.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지금의 포천시 관인면 중리까지 내려왔는데, 가도 가도 민가 하나 없고 사람도 구경할 수 없었다. 그때는 1.4 후퇴가 일어난 지 약 2달이 넘은 시기(51년 3월)라 철원과 포천 일대가 전쟁터였다고 한다.

날은 저물었는데 하루 종일 건느라 배는 고프고, 포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면서 무섭기도 하고, 거기에 어두워서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가니까 팔 한 그릇을 주기에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투가 벌어졌다. (중리 전투) 얼마나 포가 떨어지는 지 알 수 없을 정도였고, 그 즈음 중리 남산(고남산) 쪽에서 중공군이 새까맣게 넘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자신을 산등성이의 어느 굴로 데려갔다고 한다. 어두운 밤길을 기다 시피 해서 간신히 굴 안에 들어간 제보자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그제야 그곳이 방공호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밥과 숙소를 제공해준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고 그 이후로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지금도 제보자는 그 사람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혼동된다고 하였다.

한편, 재인폭포 위쪽으로 강물이 움푹 들어간 곳에 백사장이 있는데 그곳을 ‘암터’라고 불렀다고 한다. 6·25전쟁 시절에는 그곳이 피난처로 사용되었다. 그 암터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는 아내를 잃고 아이 하나, 여동생은 남편을 잃고 아이 하나 데리고 같이 살고 있었다. 추측으로는 전쟁 중에 그리된 것이라 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제보자가 암터(재인폭포 위 백사장이 있던 곳) 쪽으로 길을 가는데 국군이 가지말라고 막아서더니 총을 쏘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암터 부근, 지장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있는 굴들 중 하나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마을 어르신 하나가 총소리에 놀라 대피해 있었다. 그 어르신이 “하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죽으려면 저 쪽으로 가지.” 하며 혼을 냈다고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참 숨어 있는데 군인이 근처에 와서 숨은 사람들 빨리 나오라며 서슬 퍼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 굴은 안쪽으로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어른신과 함께 굴 안쪽의 좁은 굴들 사이를 두 세 시간 동안이나 기어서 간신히 마을로 도망쳤다. 혹시나 해서 그 근처를 가봤더니 그 군인이 계속 포위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집에 돌아 왔으나 결국 며칠 있다가 잡혔다. 그 즈음 마을을 점령한 군인들은 혹시라도 수상한 낡새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는데 제보자 역시 수상한 젊은이로 오인되어 잡힌 것이다. 비슷한 사정으로 잡힌 한 떼의 사람들과 연천군 역으로 수송되었다. 당시 연천역 부근에는 불에 탄 대부분의 집 사이로 한두 집 그나마 뼈대가 온전한 집이 있었는데 제보자는 그곳에 갇혔다. 그곳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사령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어디론가 수송하라며 지시하더니 몇 사람을 차출했는데 자신도 여기에 뽑히게 되었다. 꼼짝없이 죽나보다 했는데, 다행히 부역을 시킨 것이라고 한다. 부역이 끝난 후 수원으로 수송되었는데, 그때가 51년 늦가을이라 추위가 심하던 때였다. 수원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 부모님이 안성에 있다는 것을 안 제보자는 무작정 걸어서 안성까지 이동, 결국에는 무사히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

3.2.2 사정리(射亭里)

<제보자>

임정묵(81): 11살에 일제에서 해방되었고, 6.25때는 가평에 살았음. 여기서 산지는 60년 되었다.

김영환(71): 현 노인회장.

이정숙(75): 마을 토박이.



(1) 유래 및 생활

1) 유래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속하는 법정리로, 사정리는 관인면이 관할하는 6개 법정리 중 하나이다. 활터가 있어서 ‘활터’라고 불리다가 사정(射亭)이라고 불렸다. 조선 시대에 군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있어, 매일 군사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연천군 관인면 중리·탄동리 각 일부와 영평군 북면 월경리를 합쳐 연천군 관인면 소속의 사정리가 되었다. 1983년 2월 15일 포천군으로 이속되고,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이 도농 복합 시로 승격하면서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가 되었다.

동북쪽에서 남서쪽으로 한탄강이 흘러가고, 마을 서쪽에 고남산이 솟아 있다. 한탄강이 평균 높이 30m의 급경사 계곡을 이루면서 곳곳에 장관을 이루어 포천시의 명승지인 ‘영평 팔경’ 중 하나인 화적연(禾積淵)이 위치하고 있다. 화적연은 큰 바위와 깊은 연못으로 이루어진 절경으로, 사정리와 영북면 자일리 경계에 있다. 수면 면적은 1,300여㎡이다.

사정리의 자연 마을로 너면말·능말·떼마루·벚가리·붕어그미·사종동·샘말·쇤내·아랫능말·아랫새청·안말·와랭이·월경리·윗능말·윗새청·재궁말 등이 있다. 대표적인 자연 마을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능말은 능촌이라고도 부르며, 사정 서쪽 고남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능이 있던 마을이라 능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큰 무덤이 남아 있다. 이는 태봉 궁예 왕의 딸(공주)을 모신 능으로 전한다. 떼마루는 뗏마루라고도 부르며, 한탄강 다리에서 강을

따라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뗏목을 만들어 띄운 곳이라고 한다.

붕어그미는 섶내다리 옆에 있는 마을로, 근처에 붕어그미소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붕어그미소는 한탄강의 한 줄기로, 잉어 같은 큰 붕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양이 눈에 띄어 붕어그미가 되었다고 한다. 그미란 ‘여울, 소’를 뜻하는 ‘구미’에서 온 듯하다. 사종동은 섶내다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능말에 묘를 만들 때 사종동의 때를 썼다고 하며, 관리들이 이곳에서 활을 쏘았다고 한다. 마을에는 사정리 마을 회관이 있고, 마을 앞으로 2차선 복원로가 지나간다. 마을 북쪽으로 관인수련원이 있다.⁴⁾

제보에 따르면 사정리 1반은 아래새청, 2반은 윗새청, 3반은 능말(궁예 공주의 능이 있다고 한다), 4반은 뗏마루라고 부른다. 1반은 궁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활을 쏘는 곳이었다고 해서 쏘 사자를 써서 ‘사정리’라는 말이 있다.

2) 생활

① 낚시이야기: 옛날 근흥교 근방에서 낚시를 많이 했다. 구지비낭, 모래네, 벗가리에서도 낚시들을 많이 했는데, 꺾지, 피라미, 쏘가리 등 물고기들이 많았다고 한다. 몇 해 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낚시를 못하다가 최근에 풀리면서 다시 낚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곧 댐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② 마을제사: 사정리 전체 제사는 없고 능말하고 뗏마루에서만 산제사를 지낸다. 능말은 삼월 삼짇날 지내고, 뗏마루는 일 년에 두 번 지내는데, 봄, 가을로 지낸다. 따로 당집은 없고, 돼지머리를 놓고서 제사를 지내는데 원래 돼지머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2) 설화

1) 도깨비 이야기

사정리 답사 과정에서 도깨비와 관련된 짧지만 흥미로운 이야기 세 편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제보자(이정숙)가 구연한 이야기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① 도깨비 이야기1: 마을 노인네들이 그러는데 뭘 해먹었으면 도깨비한테 뭘 바쳐야 한대. 바치지 않으면 솔뚜껑을 솔 안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다는 거야. 솔보다 솔뚜껑이 얼마나 더 큰데 그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 기겁하지.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뭘 바치고 방안에 들어가 있으면 솔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줬다지 뭐야.

② 도깨비 이야기2: 옥분이었나?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깨비가 “자니?” 그러더라.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데 그냥 그러고는 문을 닫고 나갔대. 별다른

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참조.

5) 학문적인 의미에서 채록은 구연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에 행해진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조사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쉽게 풀어 쓰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해당 설화의 경우 내용도 짧을 뿐 아니라 구연자의 설명이 명확하여 일반인들도 이해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구연상황을 반영하였다.

해꼬지는 안 했는데, 그 도깨비가 대체 왜 그랬나 몰라.

③ 도깨비 이야기3: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놀러서 떼는 국수 있죠?(칼국수로 짐작된다) 그거를 도깨비한테 안줬대. 그랬더니 밤중에 떼는 국수 가락들이 나무마다 가서 걸려 있더라. 너무 놀라서 빌면서 국수를 바쳤더니 국수가락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더라.

2) 강한 고남산

① 고남산과 지장산 이야기: 고남산이 여산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쪽 지역 여성들이 좀 드세다고 하더라구요. 고남산의 산 형상이 여자가 앉아서 오줌을 누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쪽으로는 물이 많은데 반대쪽인 중리 쪽으로는 물이 안 가요. 고남산 뒤편으로 지장산이 있는데, 이 지장산이 남자산인 거 같아. 생긴 게 꼭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거 같은 모양새야. 금악산 줄기가 지장산으로 이어져서 이게 왕방산까지도 이어진다더라고.

② 정혜사 능터 이야기: 고남산의 음기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고남산 아래 능말에 위치한 정혜사 바로 밑에 궁예 공주의 능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이곳은 대대로 기가 센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 궁예 공주의 능터를 복원할 당시 어떤 사람이 해당 지역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화김에 능터에 있는 비석(무관비석이라고도 하고 문관비석이라고도 한다)을 가져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세워 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장사가 잘 안되고,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져 고통을 겪게 되었다. 결국 비석을 도로 가져다 놓은 후에야 집안의 우환이 사라졌다고 한다.

설화라기보다는 에피소드에 가까운 이야기도 있다. 공주의 능터를 복원할 당시 마을 이장이 차를 세워두고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차를 받았고, 그 충격에 튕겨져 나간 이장의 차가 하필이면 능터 복원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타고 온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한다. 전례가 있어서일까. 어찌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 이 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가 센 터를 건드린 데 따른 재앙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애꿎은 이장에게 가만히 있는 것(능터)을 건드려서 화를 자초했다며 비난했다고 한다.

궁예의 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망국의 공주라는 이미지로 인해 “원혼=강한 음기”로 연결된 듯하다. 그런 점에서 고남산의 음기는 산의 형세뿐만 아니라 궁예 공주와 관련된 역사적 비극과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지명유래

1) 벚가리소의 용바위: 벚가리소(화적연) 앞에 솟아 있는 큰 바위를 사정리 사람들이 부르는 말. 벚가리소는 영북면 자일리와 관인면 사정리의 경계에 있어서 비록 행정 구역 상으로는 자일리에 속하나, 사정리 주민에게도 친숙한 곳이다. 벚가리소는 소 앞의 바위가 마치 벚꽃을 쌓아놓은 듯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으로 벚가리소의 유래가 되는 바위이다. 그런데 사정리에서는 이 바위를 용바위라고도 부른다고 한다.(벚가리소와 용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일리 지명 유래 참조)

2) 구지비낭: 절벽이 끝이 없이 이어진 곳으로 벚가리 옆에 위치해 있다. 다른 마을에서는 이 낭 역시 ‘비둘기낭’이라고 보기도 한다.

3) 정혜사: 고남산 아래 능말에 있는 절. 이곳의 바로 아래가 궁예 공주의 능터라고 한다. 마을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의 터가 엄청 세다고 하며 관련된 일화 몇 가지가 전한다.(자세한 내용은 사정리 마을의 설화 참조)

4) 새청: 6사단 앞에 있는 마을이다. 활을 쏘는 곳이 있었으므로 새청이라 부르 게 되었다고 한다.⁶⁾

5) 까치골: 사정리에 있는 마을이다.

6) 이하의 내용은 『포천의 지명유래집』(포천문화원 편, 2006)에서 발췌하였다.

6) 너먼말, 너먼개: 떼마루 마을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등 너머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7) 능말(陵村): 고남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태봉국 궁예왕의 딸이 묻혔다고 하는 무덤이 있어서 능말(陵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 묘가 있는데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다.

8) 떼마루, 사종동(莎宗洞): 근흥교 서쪽 4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 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뗏목을 만들 어 띄운 곳이라 해서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능말에 있는 궁예왕의 딸 무덤을 쓸 때 이곳에서 떼를 떼다고 하여 떼마루 또는 사종동(莎宗洞)이 되었다고도 한다.

9) 봉어그미: 쏠내다리(근흥교) 옆에 있는 마을이다. 한탄강 봉어그미소가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 샘말, 쪽박소: 새청 동남간으로 옆에 있는 마을이다. 좋은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1) 쏠내, 신천: 사청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금의 근흥교가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나룻배를 건너던 곳이다.

12) 아랫능말: 능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능말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3) 아랫새청: 새청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청 아래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 안말: 사종동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사종동 안쪽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5) 월경리: 쏠내, 새청, 뱃가리소등 3개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인데 사정리가 영평군 때 월경리였다.

16) 윗능말: 능말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능말 위쪽이어서 윗능말이 되었다고 한다.

17) 윗새청: 새청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청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8) 재궁말: 능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태봉국 궁예왕 때 궁녀들이 기거하는 궁궐이 있었다고 하여 재궁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9) 귀소들: 귀소가 있는 들이다. 귀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0) 쏠내들: 쏠내 앞에 있는 들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21) 큰두둑: 능말 동쪽에 있는 논벌이다. 툇 불거진 두둑처럼 등성이에 있는 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2) 능너머: 능말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능말 너머라는 위치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23) 독수골: 능말 동남쪽에 있는 산기슭이다.

24) 광산: 사정 서쪽에 있는 광산으로 광복 전까지도 금을 채광하였다고 한다.

25) 방아지명덜: 고남산 남쪽이 되고 능말 뒷산의 둔덕이다. 돌이 하도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26) 비석거리: 모래소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비석이 서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7) 삼발골: 육구무덕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삼발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8) 아랫모라내: 모라내 마을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29) 안산(案山): 능말 앞에 있는 산이다. 풍수지리상 마을 앞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 것으로 생각된다.

30) 암쟁이, 앵쟁이: 원내미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1) 여골: 삼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2) 원내미: 떼마루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만삭의 여인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언느미’가 ‘원내미’로 변음된 듯하다.

33) 육구무덕: 능말 뒤에 있는 산이다.

34) 작은 장자골: 장자골의 작은 골짜기이다.

35) 장자골: 능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6) 큰장자골: 장자골의 큰 골짜기이다.

37) 윗모라내: 모라내 위쪽의 골짜기이다. 모라내 위쪽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8) 수레골: 삼울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궁예가 우차(牛車), 수레를 은닉시켰던 골짜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39) 능너머개울: 능너머에 있는 개울이다. 능너머에 흐르는 개울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40) 새청개울: 사단본부 자리 앞에 있는 개울이다. 새청 앞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41) 원내미고개: 새청에서 떼마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내미와도 통하는 고개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42) 귀소(龜沼): 암장이 남쪽 한탄강에 있는 소이다. 이 소에 많은 자라가 기어오르는 모양의 바위가 있다. 자라와 거북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43) 노랑어울소(黃灘): 모래소 동쪽 한탄강에 있는 소이다. 노란 돌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4) 모라내: 암장이 동남쪽에 있는 한탄강 나루터이다.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꽤 많은 물이 한탄강과 합류되는 지점으로, 옛날에는 도둑놈 소굴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도둑놈을 모두 몰아내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모래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45) 모라내고개: 모라내에 있는 고개이다. 모라내에 위치한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46) 모래소: 벚가리소 동쪽의 한탄강에 있는 소이다. 모래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7) 본논: 능말 앞에 있는 논이다. 보(淤)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논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48) 불당개: 중이고개 서쪽으로 있다. 불당이 있던 자리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49) 봉어그미소: 봉어그미 부락에 있는 소이다. 봉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0) 사단본부자리: 돌짜고개 앞에 있는 6사단 사령부 자리이다. 6사단이 주둔하고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51) 성금바위: 피난굴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52) 솔개고개: 능말에서 떼마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산 형세가 솔개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3) 윗고개: 능말에서 떼마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역적으로 맨 위쪽에 위치한다고 해

서 붙여진 이름이다.

54) 재궁고개: 재궁에서 탄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재궁이란 마을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55) 중이고개: 능말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56) 짝바위: 형제바위 옆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2개가 나란히 짝을 지어 다정하게 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7) 송장그미: 벚가리소 남쪽에 있는 한탄강의 소이다. 이 소에서 물이 한 바퀴 돌아나가기 때문에 한탄강에 떠내려 오는 온갖 부유물이 다 걸린다고 하는데, 익사자도 이 소에서 많이 걸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58) 피난굴: 떼마루 마을 뒷산에 있는 굴이다. 옛날에 피난하던 굴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9) 형제바위: 사청동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2개의 바위가 포개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60) 학질바위: 귀소들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 학질에 걸린 사람들이 이 바위에 치성을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61) 옷물: 능말에서 원내미고개를 넘어 좌측에 있는 약물이다. 옷 오른 사람이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4) 6.25 경험담

1)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수복되고 이 마을로 들어와 약 60년을 살았다. 제보자의 나이 16살에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당시 제보자는 가평에서 살고 있었으며, 평창 이씨를 만나 결혼한 상태였다. 전쟁이 발발한 처음에는 가평을 떠나지 않았으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결국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피난길은 여정도 고달프지만 무엇보다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 부인의 고향인 사정리에는 논을 갈 수 있는 땅이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부인의 고향인 사정리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다. 잠시 평온한 적도 있었으나 얼마 뒤 전쟁이 극심해지면서 제보자의 가족은 사정리를 뒤로 하고 다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미군들 비행장에서 휘발유통 날라서 묻는 작업을 해서 납작한 콩을 받아다가 끼니를 연명했다. 그렇게 고된 피난살이를 하다가 수복 이후에 다시 사정리로 들어와 현재까지 살고 있다.

2) 이정숙 할머니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평창 이씨 집성촌에서 낳고 자란 사정리 토박이이다. 제보자가 8세 되던 해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이 빠르고 일방적으로 남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다. 포천 지역은 특히 38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자마자 하루도 안 되어 북한의 점령지가 되었고, 때문에 피난길에 오를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반대로 아군이 진격할 때는 굳이 피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가 1.4 후퇴 이후 중공군이 남하할 때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장흥리로 피신한다. 낮선 타향에서의 피난살이 때문일까. 한동안 제보자의 가족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못 볼 꼴을 많이 봤다고 한다.

“부모님 따라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람이 급하면 자기 자식도 못 보는 모양이야. 운천 쪽으로 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총칼이 빗발치니까 자기 아들을 두고 자기 몸만 피해 들어갔

어. 한 한 시간 있으니까 자기 아들 생각이 났는지 다시 슬그머니 찾으러 나가더라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자식을 버려두고 도망친 어머니를 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식 걱정에 그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상황에 처한 모자가 한두 명은 아니었으리라. 어쨌든 타지에서 고생하던 제보자는 전쟁이 끝난 후에야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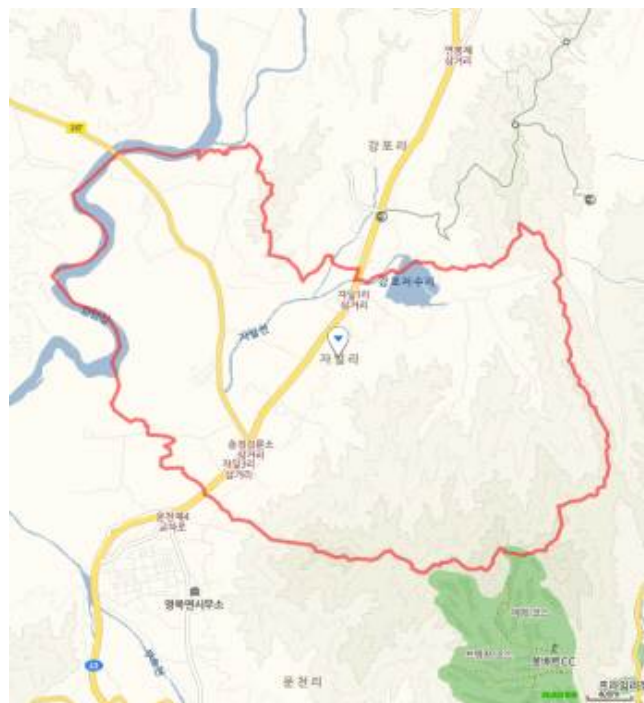
3.2.3 영북면 자일리(自逸里)

<제보자>

이기환(82) : 자일리가 고향,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사 가서 5.16혁명 때 자일리로 들어옴

강대용(81) : 14대 이상 거주, 평촌 부락(자일리 원주민 마을) 때부터 살았음, 이북에서 학교를 다니고 수복 후에 다시 자일리로 들어옴.

김인식(82) : 평촌부락(자일리 원주민 마을) 때부터 살았음.



(1) 유래 및 생활

1) 유래

자일리는 일제시대에 축조된 산정리 저수지와 자일리 저수지의 물길 지선의 명칭을 따서 이 일대에는 동자(東自), 서자(西自), 육호(六號), 팔호(八號), 평촌, 송정 등의 부락명이 있었다. 자일리 일대는 이 수리 시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옥답이 많아져 자립해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곳을 자일리(自逸里)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산골에

들이 열렸으므로 자일리라 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1912년 행정 구역은 영평군 북면 동자일리였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북면 동자일리와 서자일리를 합병하여 자일리라 하고 포천시 영북면에 편입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 지역인 자일리 전역이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가 6·25 전쟁 때 실지(失地)를 회복하여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이 이양되었다.

자일리의 위치는 명성산 서쪽 자락에 있다. 북서쪽 경계로는 한탄강이 흐르며 북쪽으로는 강포 저수지가 철원군 갈말읍과의 경계에 위치한다. 자일리 북부에는 자일천이 한탄강과 합수되며, 이 주변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해 있다.

2) 생활

① 황무지에서 마을로: 제보자(강대용)에 의하면, 자일리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황무지였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일본사람들이 산정호수를 막아서 논을 만들었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충청도, 경상도 사람들을 강제 이주 시켰다고 한다. 그들이 이민해서 올 적에 마을에 호수를 매긴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이기환)에 의하면, 운천리에서부터 내려와 영북면 전체를 1호~8호까지 호수를 매겼는데, 현재 조사팀이 조사를 한 자일4리는 6호라고 한다.

② 한탄강과 자일리 : 한탄강은 (한나라 한(漢), 여울 탄(灘)) 한나라에 여울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의 근흥교 밑에 흐르는 것은 한탄강인데, 자일리 마을사람들은 이 한탄강을 한탄강이라고 하지 않고 '섬내'라고 불렀다고 한다.

벚가리소(화적연)의 남쪽에 '산박끄미소'라고 한탄강의 물줄기를 품고 있는 조그만 소가 있다. 이곳의 이름은 이 근처에서 옛날 사람들이 산에서 산삼을 하도 큰 걸 많이 캐기 때문에 '산박끄미소'라고 불린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벚가리소와 더불어 이 곳으로 많이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먹을 감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이기환)에 의하면, 당시 벚가리소 위의 여울을 진처리 여울이라고 하는데, 벚가리소는 물이 너무 깊어서 놀 수 없었고, 진처리 여울에서 놀았다고 한다.

다른 한탄강변에 있는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메기, 잉어, 쏘가리, 빠가사리, 누치, 뱀장어, 가물치 등 없는 물고기가 없을 정도로 어종이 다양하다. 제보자(이기환)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은 강물을 돌로 막고, 나뭇가지 가는 것으로 발을 엮어서 살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 마을사람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철업을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잉어를 15~20마리까지 잡았다고 한다. 이렇게 합심하여 물고기를 잡아 마을잔치를 했다. 마을의 전체 중 약 20호 정도 가구는 물고기가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산박끄미소에 원두막을 지어 번갈아가면서 자고 4인1조로 보초를 서서 물고기를 잡았다. 제보자는 그 시절에는 물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2) 설화

1) 솔둔지, 재궁, 능팔

자일 3리 송정마을 이라고 그래요. (조사자 : 여기서 부른 이름은? 고지명은요?) 솔둔지요. (조사자 : 솔둔지요?) 응. (조사자 : 왜 솔둔지라고 그러나요?) 여기 저 요기에 조그마한 산

이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소나무로 가득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둔지, 솔둔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서는 인제 소나무 송자, 정자 정자를 써가지고서 송정마을이라고 해서 지금은 송정마을이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솔둔지, 솔둔지 그랬었죠. (조사자 : 여기 자일리라고는 최근에 붙은 이름이에요?) 글세 자일리가 언제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보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유도하였으나 특별한 이야기를 얻어 낼 수 없었다.)

저기 요 건너 동네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재궁이라는 데가 있어. (조사자 : 재궁이요?) 왜 재궁이냐면은 그전에 궁예왕이 철원에 도읍을 했을 적에 궁예왕의 누이가 살았다고 해서 궁터가 있었다고 해서 재궁이라는 데가 있고. 또 요기에 가면은 능말이라는 데가 있는데 능말. 그 능말은 능이 있었다고 해서 능말이죠. 궁예왕 누이인가 누가 거기에 묻혔다고 해서 산수도 내가 아는데요, 거기가 지금은 다 파헤쳐져서 뭐야 다 파갔어요. 뭐 하나도 없어요. 그래 거기를 능말, 능말 그러지요.⁷⁾

2) (화적연 禾積淵)과 관련된 전설

한탄 8경의 하나인 벼가리소는 벼 짚단을 쌓아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한 바위(벼가리)와 그 아래 깊은 못이 어우러진 곳이다. 이곳에는 벼가리(바위)와 소(沼), 각각에 전해지는 설화가 있다.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용바위 전설: 용바위는 벼가리소 앞에 있는 높이 13m의 바위인 벼가리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마을에는 벼가리를 용바위로 부르는 것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어느 날 한 늙은 농부가 3년 가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면서 이 연못가에 앉아 한숨을 쉬면서 “이 많은 물을 두고서 곡식을 말려 죽여야 한다는 말이나? 하늘도 무심커니와 용도 3년을 두고 낮잠만 자는가 보다.”라고 탄식하자 물이 왈칵 뒤집히며 용의 머리가 쭉 나오면서 꼬리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자 그 날 밤부터 비가 내려 풍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지방에 가뭄이 들면 화적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다.⁸⁾

① 삼부연 폭포와 벼가리소(화적연 禾積淵):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용화천의 중턱에 자리잡은 철원의 삼부연 폭포와 한탄강의 한가운데 위치한 포천의 벼가리소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한탄강의 명소이다. 전설에 따르면 삼부연 폭포와 벼가리소는 서로 통하여 있어서 용이 이 두 곳을 왕래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삼부연 폭포에서 명주 꾸리에 절구팽이를 매달아 넣으면 벼가리소로 나온다고 한다.⁹⁾ 군탄리를 비롯한 철원의 한탄강 인근 마을에서도 동일한 전설이 채록되었다.

한탄강의 특정 장소들이 서로 물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은 삼부연폭포-벼가리소 외에도 다수 발견된다. 이는 현무암 지대로 이루어져 깊은 소를 자주 만들어내는 한탄강의 지형적 특징과도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조희웅, 『경기북구 구전자료집 2』, 박이정, 2001, 60쪽. 답사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보된 바 있으나, 구연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출처 및 경로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8) 포천시청 관광문화(<http://tour.pcs21.net/>) 화적연 참조. 벼가리를 용바위라고도 부른다는 제보는 사정리와 자일리 모두에서 채록되었다. 다만, 구연 내용이 매우 간략하여(용이 올라가서 용바위라고 한다-사정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9) 포천문화원 편, 『抱川の 地名由來集』, 포천시청, 2006, 508쪽.

(3) 지명 유래

1) 송장그미: 송장그미는 뱃나다리 300m 위에 위치하고 있다. 제보자(이기환)에 의하면, 장마가 지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으면서 송장들이 내려가다가 걸린다고 하여 송장그미라고 불린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강대용)는 한탄강에서 송장이 떠내려오다가 송장그미에 걸려 빙빙 돌기만하고 빠져 나가지 못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송장그미 앞은 6·25전쟁 시기에 치열한 격전지였다고 한다. 서로 죽고, 죽이고 해서 몇 번이나 그곳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른다고 한다. 강바닥에 시체가 돌만큼 쌓여있었다.

송장그미에는 검정굴이라는 엄청 큰 자연굴이 있다. 그곳은 6·25전쟁 때 사람들의 피난처였다.

2) 와래이 개울: 송장그미에서 300~400m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는 개울하고 합수지 되는 부분을 말한다.

3) 무당소: 송장그미 쪽에 무당소가 있다. 예전에 무당이 줄타기 하다가 떨어져 죽어서 무당소라고 한다. 무당들이 치성을 드리기 위해 자주 찾아왔던 곳인데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졌다. 제보자(이기환)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교회 신자들이 찾아와 영영 울고, 굶고, 소리지르면서 20일 금식기도를 했었다고 한다.

4) 진처리 여울: 벚가리소 위에 물이 얇은 곳을 말한다.

5) 작은낭 아우라지: 신촌 북쪽에 있는 낭이다.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에서 흘러오는 물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개울둑이 절벽(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낭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을 예전에는 비둘기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6) 깨박그미: 용담(냉정리 참조) 앞쪽에 있는 소이다. 지금은 특별한 모습은 없지만, 예전에 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7) 돌무덤 : 궁예가 피난 갔을 때 평강에서 돌을 맞아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8) 명성산(鳴聲山: 울음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소재 산정호수의 동북쪽에 위치한 명성산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을 경계 짓는 산이다.¹⁰⁾ 때문에 산정리를 사이에 두고 명성산과 마주하고 있는 자일리 주민들에게 명성산은 신성한 곳이면서 동시에 친숙한 삶의 터전이었다. 한편 제보에 따르면 6.25 전쟁이 났을 때 명성산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10) 명성산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922.6m이며 통일신라의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이 산을 지나 금강산으로 갈 때 보고 울었다고 해서 붙여진 산 이름이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산으로 산 속에는 역새가 자라며, 산자락은 산정호수를 끼고 있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을 전해준다. 남북으로 뻗은 주능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경사가 급해 산행이 조금 어려운 반면 바위가 발달해 웅장한 경관을 볼 수 있다. 동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흙이 많아 대체로 편안한 산행을 즐길 수 있으며 역새가 무성해 가을 산행지로 인기가 있다. 철원군 문화관광(<http://tour.pcs21.net/>)

한편, 명성산의 유래를 왕건에게 쫓기어 피신하던 궁예가 이 산에서 피살되었다는 전설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궁예가 망국의 슬픔을 통곡하자 산도 따라 울었다고 하는 설과, 주인을 잃은 신하와 말이 산이 울릴 정도로 울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그림 10 산정호수 명성산 안내도



그림 11 명성산 정상에 오르기 전 풍경

9) 뗏마루 : 근흥교 위쪽을 용담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뗏마루라고 하였다.



그림 12 멀리서 뗏마루를 바라본 모습

10) 벼가리소 (화적연): 영북면 자일리와 관인면 사정리 경계에 있는 소(沼)로 예전부터 ‘영평8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최근 포천시에서 정한 한탄강 8경중 제3경이기도 하다. 벼가리소라는 소 앞에 있는 큰 바위가 마치 벼 짚단을 쌓아 올린 것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래서 벼가리소를 한자어로 옮기면 화적연(禾積淵)이 되는데, 외부에는 벼가리소보다 화적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기이한 형상의 화강암 바위와 그 앞을 흐르는 한탄강의

깊은 여울, 그리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현무암 주상절리가 어우러져 절경을 그려낸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유명한 시인묵객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겸재 정선의 유명한 화적연도는 바로 이곳 화적연을 그린 것이다.¹¹⁾(4장 한탄강 관련 예술 작품 자료 참조)

한편, 벵가리소의 유래가 된 바위 벵가리는 달리 용바위로 부르기도 한다. 벵가리를 용바위로 부른다는 정보는 사정리 답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생김새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용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일까. 비를 내려준 용 전설이 마을에 전해지며,(자세한 내용은 자일리 마을의 설화 참조) 더불어 가뭄이 들 때마다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사정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일찍부터 영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각지의 무당들이 이곳에서 치성을 드렸으며, 용바위를 주신으로 모시는 무당들도 있다. 실제로 어느 무당이 용바위에서 보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영험함을 얻은 후 서울에서 용한 무당으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용바위의 모양이 전설을 낳고 그 전설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다시 전설을 낳은 경우라 할 수 있다. 포천시에서는 2015년 9월 12일에 사정리쪽 강변에서 ‘기우제 재현’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림 13 포천시가 정한 한탄강8경 중의 제3경 화적연

11) 동자일(東自逸), 동이질: 서자일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 있는 저수지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자일이라고 한다. 또는 이 마을이 동이의 안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동이질’이라고도 부른다.

12) 서자일(西自逸), 술막, 서지울: 동자일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 있는 저수지의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자일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43번국도 대로변이어서 술과 음식을 파는 주막거리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서지울 또는 술막이라고도 부른다.

13) 승지골, 새터: 옛날에 승지를 지낸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승지골이 되었다. 예전에는 한두 집이 살았으나 6·25 수복 후에 큰 마을을 이루게 되어 새로 생겼다는 뜻으로 새터가

11) 이곳은 조선 중기 영의정을 지낸 사암 박순과 명필가인 석봉 한호 그리고 한시의 대가인 봉래 양사언의 작품으로 유명해졌다. 영평팔경은 금강산 유람길의 노정에 있어, 당대 유명한 선비나 화가가 들렸던 명승지다.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도 화적연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진경산수화는 자연을 그림의 대상으로 삼아 그리는 한국 고유의 풍경화다. 진경산수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물화가 중심이었다. 화적연에 관한 작품으로는 겸재 정선 외에도 이윤영, 정수영 등의 작품도 있다. 김학범,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2』, 김영사, 2014, 364쪽 참조.

되었다고 한다.

14) 육호(六號): 송정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정호수와 자일리 저수지의 수로 8곳 중 6번째 수로에 형성된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 자일4리이다.

15) 칠호(七號): 육호부락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정호수와 자일리 저수지의 수로가 모두 8개이다. 7번째 수로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16) 팔호(八號): 칠호부락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정호수와 자일리 저수지의 8번째 수로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7) 근홍교(根弘橋) : 팔호에서 관인면 사정리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1968년 8월 20일 군 부대에서 놓은 다리이다. 6·25사변 당시 보병 제8사단 10연대장 고근홍 대령이 이곳 한탄강을 도하하여 평남 덕천지구에서 중공군과 격전 중 31세를 일기로 전사함으로써 조국에 몸을 바치었다. 고(故) 고근홍 대령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근홍교라 이름지었다. 6·25 사변 전에는 다리가 없고 배를 이용하여 왕래하던 나루터이므로 ‘섬내배터’라고 불렀다.¹²⁾



그림 14 곧 완공될 한탄강 댐에 의하여 수몰될 구 근홍교의 모습. 위쪽에 근래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다.

12) 고근홍 대령은 1920년 경기도 강화군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 후 용감한 일선 지휘관으로서 한라산, 지리산의 공비토벌작전에 빛나는 공을 세웠다. 6·25 전쟁 때는 보병 제8사단 제10연대장으로 대구 부근 영천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우며 승리를 거둬주었고, 북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한탄강을 넘어 평양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1950년 11월 25일 평남 덕천 부근에서 엄청난 수로 몰려 내려오는 중공군을 상대로 격전 벌인 끝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 때 그의 나이 약관 31세였다고 한다.



그림 15 신 근홍교의 모습

18) 동이질저수지 (강포저수지): 동자일 동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와 경계가 된다. 동이질의 마을 이름을 따서 동이질 저수지가 되었고 또한 강원도의 강포리의 마을이름을 따서 강포저수지가 되었다.



그림 16 강포저수지의 전경

19) 구석말: 동자일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석진 곳에 있다고 하여 구석말이라 부르게 되었다.¹³⁾

20) 동상동(東上洞): 동자일 부락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자일 위쪽에 있어서 웃말이라고도 부른다.

21) 동하동(東下洞): 동자일 부락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자일 아래쪽에 있어서 동하동 또는 아랫말이라고 부른다.

22) 별말(坪村): 서자일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별판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6.25사변 전에는 주로 별말이라 부르다가 평촌으로도 불렸다.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다.

23) 안골(內谷): 동자일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쪽 골짜기라 하여 안골이 되었다고 한다.

13) 이하의 내용은 『포천의 지명유래집』(포천문화원 편, 2006.)에서 발췌하였다.

24) 송정(松井, 松亭), 솔둥지: 육호 부락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이 마을 뒤로 소나무 숲이 우거져 마치 솔숲 속의 우물과 같다고 하여 솔우물 즉 송정(松井)이라 하였고 또는 소나무 둥지와 같다고 하여 솔둥지라고도 한다. 또한 소나무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송정(松亭)이라고도 부른다.

25) 신촌: 팔호 부락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하였다. 5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30여 호가 살고 있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신촌이라 부른다.

26) 깊은웅덩이: 송정과 새터 부락 사이에 있는 논들이다. 이곳이 지형적으로 우묵하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7) 갑바지골: 팔호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8) 당골: 수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황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9) 뒤골: 서자일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쪽에 있는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의 작은 골짜기를 작은뒤골이라고 부른다.

30) 미락골: 속새둔지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산에서 외파로 뚝 떨어져 있는 작은 골짜기이어서 생긴 이름으로 생각된다. 큰 골짜기를 큰미락골이라 부르고 작은 골짜기를 작은미락골이라고 부른다.

31) 중군봉(中軍峰): 육호 부락 북쪽 별판 가운데 있는 산봉우리이다. 지형상으로 군작전상 중요한 곳이어서 전쟁 때마다 이곳을 많이 이용하였다고 하여 중군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32) 바람골: 동자일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자일에서 정면으로 마주 바라보인다고 하여 바람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33) 성주골: 자일 부락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좀 작은 골짜기를 작은 성주골이라고 부른다.

34) 속새둔지골: 미락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가 많고 새둥지가 많았다고 하여 속새둔지골이 되었다.

35) 신배나무골: 수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배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6) 중방바윗골: 솔둥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중방바위가 있어서 중방바윗골이 되었다.

37) 호박골: 강포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호박이 잘 된다고 하여 호박골이 되었다고 한다.

38) 회봉골: 신배나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9) 수자골: 서자일 뒤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40) 봉우재: 팔호 부락 뒤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옛날에 봉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1) 느치고개, 느껴 울고 넘던 고개: 동자일에서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궁예가 왕건에게 패하여 북으로 쫓겨 갈 때 느껴 울면서 넘던 고개라고 하여 느치고개 또는 느껴 울고 넘던 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42) 다랑고개: 송정에서 새터 부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형이 다르다고 하여 다른 고개라고 부르다가 변음되어 다랑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고개 밑에 많은 다랑논(아주 작은 논배미)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생각된다.

43) 동자고개: 동자일에서 서자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자일에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지명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44) 섬내다리: 섬내에 있는 다리이다. 섬내 개울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근흥교 자리에 있던 옛날 의 다리를 말한다.

45) 애고개: 서지울에서 동이질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곳은 애총 천지라고 할 만큼 애총이 많았기 때문에 애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46) 중방바위: 솔동지 동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중방처럼 생긴 바위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4) 6.25 경험담

1) 김인식 할아버지의 6·25전쟁 이야기

제보자에 따르면 그 시절에 나이가 찬 사람들은 나라에서 불러서 군대를 갔지만, 나이 어린 사람들은 직접 지원해서 군대를 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6·25전쟁 때 17살이라서 차출이 되어 국군에 가서 치안대에 들어갔다.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 자일2리에서 인민군들을 격파할 수 있는 한방을 노리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인민군들의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쳤는데, 제보자는 도망가지 못하고 잡혔다. 그 자리에 있던 인민군이 권총을 빼앗아서 다 쏘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제보자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당위노동당에서 활동을 해 당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당위노동당에서 활동을 한 사람은 “우리 모두는 사실 이념이 공산주의야. 그런데 우리는 전쟁 중에 국군한테 끌려갔던 것뿐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2) 할아버지의 6·25전쟁 이야기

광복 후에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던 제보자의 6·25는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 순탄한 편이었다. 비록 부모님과 누이동생은 병으로 인해 전쟁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전쟁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보자는 징용서가 이복으로 되어 있어서 조회해도 기록에 나오지를 않아 뜻하지 않게 군대 기피대상자가 되었다. 결국 5·16 이후에 군대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3) 이기환 할아버지의 6·25전쟁 이야기

제보자(이기환)에 의하면, 연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민군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총으로 쏘아서 다 죽였다. 이 때 그 자리에 있던 40여명이 넘게 죽었다고 한다. 처음에 인민군들은 먹을 물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마른논에 벼를 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없다. 전란 중에 구황작물을 구하기도 힘들어 나무뿌리를 캐 먹으면서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3.2.4 영북면 운천리(雲川里)

<제보자>

이덕현(80) : 현 노인회장, 60년 이상 거주, 수복 후에 들어옴.

김진익(76) : 야미리가 본가이며, 피난 중에 운천으로 들어옴.

신동화(61) : 50년 이상거주, 평산신씨 집성촌, 원래는 소회산리에 살았음.

임득재(69) : 6·25 전쟁 직후에 들어옴.

한상덕(55) : 현 청년회장, 마을 토박이



(1) 유래 및 생활

1) 유래

운천리는 물이 맑아서 이 맑은 물에 구름이 비치면 마치 구름이 물속에 잠긴 듯했기 때문에 '구름내(雲川)'라 불렀다고 한다. 또 한일합방 전에는 '굴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따서 한자식 지명으로 운천(雲川)이라 불렀다.

1912년 행정 구역은 영평군 북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북면 하굴리와 혁장리의 각 일부를 병합해서 운천리라 하고 영북면에 편입시켰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 지역인 운천리 전역이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가 6·25 전쟁 때 실지(失地)를 회복하여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이 이양되었다.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면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가 되었다.

운천리는 1리에서 9리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마을이다. 운천리의 북서쪽 경계로는 한탄강이 굽이 쳐 흐르며, 이로부터 영북면사무소가 위치한 주택 밀집 지역까지 농경지가 넓게 구획되어 있다. 서쪽 경계로는 부소천이 한탄강으로 흘러들며, 동쪽과 서쪽은 나지막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한탄강변에 있는 마을 운천 4리는 30호의 가구가 살고 있다.

2) 생활

① 모란꽃봉오리와 운천리: 산정호수 물을 따서 농사를 지으면서 1호~8호까지 호수를 매겼는데, 조사팀에서 조사한 운천 4리는 5호 마을이다. 운천리 사람들은 한탄강변을 모란꽃봉오리를 상징하는 모란이라고 한다. 모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 태자가 금강산으로 들어갈 적에 이강을 거쳐 지나가며 산줄기가 이곳으로 모두 모여들어 모란꽃 봉우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주변에 백사장이 있어서 모래내 유원지가 있는데, 모래내는 잘못 붙여진 이름이다.

② 한탄강과 운천리: 제보자(신동화)에 의하면, 한탄강에는 샘터 이름이 다 붙여져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디어디로 와’ 하면, 그곳에 한데 모여서 다같이 물고기를 잡고 놀았다고 한다. 물고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잡았는데, 삼태기로 잡고, 쪽대로 잡고, 작살로 잡고, 투망으로도 잡았다. 모래무지, 뱀장어, 쏘가리, 꺾지, 참게 등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잡았다. 특히 무당소 바위틈에 참게가 엄청 많았다고 한다.

③ 운천리의 마을제사: 예전에는 마을 앞에 100년 이상 된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 이 정자나무는 성인남자 3명이 손을 뻗고 안으려고 해도 나무가 굽어 쉽게 안을 수 없는 크기였다.

당집은 따로 없었고, 여기서 마을제사를 지냈다. 매년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고, 돼지머리나 통돼지를 사용한다. 현재까지 예전 어르신들을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제사를 지내고 있다.

마을제사는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바라기 위해 지내는데, 추문을 써서 명성산, 고남산, 각출산 세 개의 신령에게 “마을 사람들 안정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린다. 이 나무는 작년에 벼락을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지금은 현재 느티나무를 다시 심어놓았다고 한다.

(2) 설화

운천리에서 전해오는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1) 곱돌이와 패랭이

이 정승 아들의 이름은 곱돌이고, 판서의 아들은 패랭이였다. 곱돌이와 패랭이는 같은 서당에 다녔다.

하루는 곱돌이가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는 잘 사는데, 패랭이는 집이 가난하여 점심을 못 싸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곱돌이가 ‘저 놈을 부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꾀를 썼다. 그래서

“너 내 말을 들어라.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승이 아니냐. 아버지의 손가락을 가져다가 내일 아침 새벽에 장독간 뒤에다 파문을 테니, 네가 그걸 알아맞히면서 그걸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버지에게 좋게 말해주겠다.” 고 했다.

14) 운천리의 제보자들은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기존의 문헌 자료로 대체한다. 이하의 내용은 이근영·이병찬, 『포천의 설화』(포천문화원, 2000.)에서 발췌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종들이 밥을 해 상을 보는데 정승의 손가락이 없었다. 까딱하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데, 곱돌이란 놈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패랭이가 냄새를 잘 맡고 잘 찾는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 애를 불러올까요?” 하니 모두들 불러오라고 했다. 미리 손가락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것이니까 영락없이 찾게 되었다.

패랭이가 괜히 돌아다니다가 장독간에 옆에 가서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 그 곳에서 손가락이 나왔다. 사람들이 “야, 너 참 귀신같구나! 너 어떻게 잘 찾니?” “제가 냄새를 잘 맡아서 찾기도 잘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어느 날, 정승에게 나라의 관문서가 왔다. 내용인 즉, 중국에서 금 두꺼비를 두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는 사람이면 천금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관에 모여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궁리를 하다가 문득 정승이 하는 말이

“야 패랭이가 냄새를 잘 맡는다더니 그것도 냄새 맡아 찾을까?”

하고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니, 곱돌이가

“아, 제가 불러 볼게요.”

해서 패랭이는 중국에 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너 며칠 만에 찾을 수 있느냐?”

고 물으니까 패랭이가 열흘 만이면 찾는다고 했다.

여드레 째 독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문풍지가 부르르 떨렸다. 그러자 패랭이는 못 찾는 것이 겁이 나서

“문풍지야 떨지 마라. 내일이면 죽는다.”

고 했다. 패랭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엿보러 왔던 도둑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도둑놈의 성이 문가고 이름은 풍지였다. 도둑놈은 문을 열고 들어와 살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패랭이는

“벌써 죽일 건데, 내 너 하는 거동을 보려고 아직 죽이지 않았다.”

고 했다. 그리고는

“네가 어디에 감췄는지 다 알고 있지만, 네 입으로 말을 해봐라.”

라고 하니

“위 연못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라에서 문지기로 일하는데, 그 금두꺼비를 보니 자기만 못 사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연못에 버렸다고 했다.

다음날 패랭이가 임금님에게 가서

“금두꺼비는 이 뒤에 있는 연못 안에 있으니까 물을 퍼내십시오.”

라고 했다.

사람들이 두레박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냈다. 그랬더니 금두꺼비 두 마리가 정말 바닥에 있었다. 중국 사람들이 그만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어린아이가 와서 그것을 찾으니 자기네가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이놈들이 이제 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패랭이를 죽이려고 함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무언가를 넣어 놓고서는

“너 이걸 알아맞히면 우리가 비단을 한 사람 앞에 열 필씩을 줄 것이고, 이것을 못 찾으면 너는 우리한테 죽을 것이다.”

고 했다. 패랭이는 너무 무서워서

“아, 죽는다. 곱돌이 때문에 패랭이 죽는다.”

면서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 곱돌이라는 이름이 곱돌함과 똑같았다. 중국 사람들이 곱돌로 함을 만들어서 함 속에 넣어 놓은 것이었다.

결국 패랭이는 한 사람 당 비단을 열 필씩을 받고, 또 천금을 가지고 왔다. 나중에 예쁜 여자에게 장가들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한다.

< 원심위, 85세, 남, 영북면 운천6리, 1997. 4. 9. >

2)

산정리에 여우고개라는 고개가 있다. 그곳에서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을 했다가 다시 여우로 되었기 때문에 여우고개라 하는데, 옛날에는 그 근방에 집이 별로 없었다.

한 번은 이동리의 마당바위 쪽에 사는 60살 쯤 되는 노인이, 철원에 사는 딸의 외손주가 장가를 가게 되어서 그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나무가 우거진 소로길을 올라가는데, 마루터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갓을 쓴 남자를 만났다. 그가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노인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다. 노인이

“나는 철원 사는 딸네집에 가는 길ियो.”

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 남자가

“아, 그러시오. 나도 철원 쪽에 가는 길이니 나하고 함께 동행을 합시다.”

라고 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담배를 함께 피우고 길을 떠났다.

철원에 도착하여 잔치중인 딸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식구들이 ‘할아버지 오셨다’, ‘아버님 오셨다’하고 반기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냥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다가 문득 함께 왔던 사람이 생각나서 찾았으나, 이미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부 방에 가보니 외손주 며느리가 될 신부가 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큰일이 났다고 소동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 아무개라는 큰 고개에 창을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면 진짜 신부를 가려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귀를 타고 서울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 내려오는데, 아무리 빨리 걸으려 해도 결혼식에 제대로 맞춰 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귀에 달구지를 달아 타고 채찍질을 하며 내려왔다. 도착하여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여우인지를 가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마당에 있던 썰개(조그만 개를 말함)를 내려 풀어놓았다. 그랬더니 그놈이 사납게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벼락같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이때 큰개도 썰개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큰개는 두 사람이 똑같은 복색을 하고 똑같이 앉아 있어 진짜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썰개가 그 중 한 쪽의 옆을 쭉 밀어서 헤치니, 그 여자의 엉덩이에 꼬리가 아홉 개나 달려 있었다. 꼬리를 들킨 여자는 재주를 넘더니 여우로 변신해서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고개를 ‘여우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박승운, 남, 영북면 운천9리, 1995. 8. >

3) 허풍

옛날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중이 뒤에서 쫓아왔다. 같이 길을 가다가 조그만 고개를 넘어 가려니까 중이 거기서 쉬어가자고 자꾸만 졸랐다. 그래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동산 너머 쪽에서 다른 대사 한 명이 왔다. 한 명이 더 왔으니 이제 셋이 되었다. 셋은 고개에 앉아서 함께 쉬게 되었다.

한 중이 다른 중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느 절에서 왔소?”

“예, 나는 막걸리 먹고 돈 안내는 동네에 있는 절에서 왔소.”

“아, 거 공주서 왔구랴.”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소?”

“난 막걸리 웃국물 먹고사는 데서 왔소.”

“막걸리 웃국이면은 청주니까 그래, 청주서 왔군요.”

“그럼, 당신 생이 무슨 생이요?”

“난 머리 현지난 사람이요.”

“아 그림 병인 생이로구랴.”

“당신은 무슨 생이요?”

“난 발바닥에 현지난 생이요.”

“아, 그림 병신 생이로구랴.”

“아, 그렇군요. 당신 네 절에 중이 많다드니 얼마나 많으우?”

“아, 많죠! 아침에 저 큰 주방 밑에 돌쩌귀 밑에다가 쌀 열다섯 가마를 놓고선 한 명이 한 알씩 가지고 가라고 하면 종일 줄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당신 네 그 돌쩌귀 가마가 크다드니 얼마나 크지요?”

“크기는 크지요. 동짓날 팔죽을 거의 다 나눠주고 중이 나갔다가 걸레질하고 되돌아와서 팔죽을 더 먹으려고 그릇에다 퍼놓곤 50년 동안을 건진다고 나무대를 저으니까 해골바가지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 거룻배를 타고 팔죽을 젓던 사람이 거기에 빠져 죽어서 나온 해골이지요.”

“아, 그래요. 그럼 당신 네 변소간이 높다지요? 얼마나 높으오?”

“높기야 높지요. 계란을 먹고 뒤를 보고선 근처에 뉘시를 가서 뉘시를 하고 있으면 그제서야 바닥으로 떨어지지요.”

라고 하며 둘이 앉아서 허풍을 치는 것이었다.

< 원심위, 85세, 남, 영북면 운천6리, 97. 4. 9. >

(3) 지명 유래

1) 거북바위: 거북바위는 생김새가 완전하게 거북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북바위 위쪽으로 산이 많은데, 제보자(이덕현)에 의하면 나무하러 산에 갈 때 거기에 유골을 밟지 않고는 나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유골을 밟고 나무를 했다. 옛날 돈도 나오고, 탄피도 나오고 했다고 한다.



그림 18 겨울철 거북바위의 모습.

2) 섬바위: 섬바위는 운천리에서 한탄강으로 내려가면 보이는 매우 큰 바위이다. 제보자(이덕현)에 따르면 그 안에 굴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놀러 와서 굴에서 자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한탄강에서 놀다가 그 굴 안에서 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림 19 겨울철 섬바위의 모습

3) 무당소: 무당소는 샘물터 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한탄강 절벽에서 샘물이 솟는다. 여름철에 땀띠가 나면 물로 샤워를 하면 물 자체가 너무 차가워서 땀띠가 모두 사라진다고 한다. 한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길어다 먹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농사를 짓는 곳이 많아 물에서 악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는다. 무당소는 무당이 내림굿을 하는데 물속에서 방울을 가지고 흔들면서 나왔다. 그래서 무당소가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자일 4리와 운천 4리의 경계선에 있다.

4) 삼형제바위: 삼형제바위는 세 개의 바위가 모두 똑같이 붙은 이름이다.



그림 20 겨울철 삼형제바위의 모습

5) 여자바위: 여자바위는 여자의 성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그림 21 여자바위의 모습

6) 용암대폭포: 용암대 폭포를 그 전에 ‘20리소’라고 불렀다. 원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깊었는데, 지금은 공사하고 발전하면서 무너져버려 깊지는 않다. 산정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용암대폭포에서 한탄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림 22 겨울철 용암대폭포의 모습

7) 여울목: 여울목은 겨울에서 알아서 얼지 않는다. 다만, 미끄러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다.



그림 23 겨울철 여울목의 모습

8) 송장그미: 송장그미는 그 전에는 귀미소라고 불렀다. 절벽 쪽에서 바라보면 사람이 죽은 모습으로 누워 있다는 것 같다고 해서 송장그미라고도 하고, 송장이 걸린다고 해서 송장그미라고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일리 편 참조)

9) 탱크바위(암반바위): 넓고 평평한 큰 모양의 바위를 암반바위라고 한다. 그 밑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서 놀 수도 있고, 그 위에서 놀 수도 있다.



그림 24 장마철 물이 불어난 한탄강의 탱크바위

10) 중바위: 중바위는 목에 염주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중바위라고 불렀다.

11) 박쥐바위: 운천 4리에도 배터가 있었고, 뗏마루 쪽에 박쥐바위가 있는데, 그 쪽에 배터가 있었다고 한다. 박쥐바위 안쪽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박쥐들이 많이 살아서 박쥐바위라고 한다. 제보자(김진익)는 나무를 하고 매일 배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다녔다고 한다. 박쥐바위에서도 무당들이 치성을 드렸다.



그림 25 운천4리에서 바라본 박쥐바위

12) 삼대대개울: 송장그미 바로 위에 작은 개울이 있는데, 소회산리와 자일4리, 운천4리 경계선을 삼대대개울이라고 한다.

13) 자라바위: 자라가 목을 빼끔 내놓고 있는 모양으로 생겨서 자라바위라고 한다.



그림 27 자라바위

14) 골안, 보육원동: 붉은데기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골짜기 안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수복 후 미7사단 17연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 보화보육원이 생겨서 보육원동이라고도 부른다. 행정구역상 지금의 운천 9리이다.

15) 굴울주막: 붉은데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운천(雲川)의 옛 이름이 굴울이므로 굴울은 구름의 변음으로 생각되며 이곳에 주막이 있던 곳이어서 굴울주막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16) 사호(四號): 오호 부락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정호수 저수지의 수로가 모두 8개이다. 4번째 수로에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사호라 부르게 되었다.

17) 굴울: 붉은데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굴울은 운천의 옛 이름이다. 운천은 물이 맑아

구름이 비치면 마치 구름이 물속에 잠긴 듯 했다고 하여 ‘구름내’ 라는 뜻으로 생긴 이름인 것으로 보아 구름이 변음 되어 굴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18) 각흘산(각흘봉): 굴울 동쪽에 우뚝 솟은 해발 466m의 산이다. 산봉우리가 짐승의 뿔(角)처럼 생겨 서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19) 매봉: 운천에서 바라볼 때 남쪽에 있는 산이다. 모양이 매처럼 생겨서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20) 성터: 점말 골짜기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옛날 궁예가 지은 성터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1) 모란여울: 사호 부락 앞 한탄강에 있는 여울이다. 다이빙대가 있다.

22) 진모루¹⁵⁾: 붉은데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긴 모통이를 끼고 있는 부락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3) 바머루, 암우동(岩隅洞): 붉은데기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 아래로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렸기 때문에 방아모루라 부르다가 바머루로 변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큰 바위가 있다고 하여 암우동(岩隅洞)으로도 부르게 되었다.

24) 붉은데기: 점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흙빛이 붉은 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붉은데기가 되었으며 이 고개에는 서낭이 있었다고 한다.

25) 오호(五號), 열집매: 굴울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정호수의 5번 째 수로에 형성된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영, 호남과 충청도 지역의 주민이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6·25사변 이전에는 10호 가량의 농가가 살았기 때문에 열집매 라고도 부른다.

26) 점말(店村): 바머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가마솥, 농기구, 연장, 따위를 만드는 무쇠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7) 종점(終點): 붉은데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28) 가는골(패주골): 바머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궁예가 왕건에게 항복하고 이 골짜기를 넘어갔다고도 하고 왕건에게 패한 궁예가 이곳을 경유하여 철원 금학산으로 도망갔다고도 하여 가는골 또는 패주골이 되었다고 한다.

또는 이 골짜기에 대단히 큰 묘가 있었다. 이 묘가 능 같았다고 하여 가능골이 가는골로 변음 된 것이라고도 한다. 위 골짜기를 위 가는골이라 부르고 아래골짜기를 아래 가는골이라고 부른다.

15) 이하의 내용은 『포천의 지명유래집』(포천문화원 편, 2006.)에서 발췌하였다.

29) 가운데고래: 오호 앞에 있는 들이다.

30) 산부리: 바머루 앞에 있는 들이다. 산부리가 들에 까지 쑥 들어와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31) 쇠경두: 굴울 서쪽에 있는 들이다. 왜정 때 개간한 들로 소작농이 경작하면서 소작료를 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32) 빈장모통이: 바머루 남쪽에 있는 들이다. 옛날에 장이 섰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33) 농바위골: 피란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농바위가 있기 때문에 농바위골이 되었다고 한다.

34) 도독골: 점말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35) 산갓골: 양토목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갓(산나물의 일종)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6) 산제당골: 점말 동쪽 각흘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제당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37) 샛골: 매봉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과 산 사이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아래골짜기를 아래샛골이라 부르고 위 골짜기를 위샛골이라고 부른다.

38) 석장골: 붉은데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고려장 터이고 많은 돌이 있다고 하여 석장골이 되었다.

39) 섶갓골: 굴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참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40) 외판소등: 샛골 동남쪽에 있는 산등성으로 외판소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1) 장구봉: 붉은데기 동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장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42) 제당골: 농바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당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3) 중사린골: 홍바위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44) 진등: 굴울 동쪽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등성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5) 길재: 점말 동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산등성이가 이 부근에서는 제일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6) 춘대나무골: 점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뺨뺨하게 우거지면서 대나무 같이 아주 곧게 자란 나무가 있는 골짜기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47) 피란골: 점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입구는 매우 좁으나 들어가면 조금 넓어지고 평평해 진다. 맨 끝으로는 원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유사시 피난 갈 만한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48) 하교대골짜기: 점말에 있는 골짜기로 5군단 하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49) 흥바위골: 춘대나무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에 큰 바위가 추녀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약 30~40명이 들어가도 비를 맞지 않는다고 한다. 넓은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50) 양토목골: 길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51) 육호개울: 붉은데기 북쪽에 있는 개울이다. 육호 앞에 흐르는 개울이어서 육호개울이 되었고 산정호수 6번 째 수로의 물길이 된다.

52) 부소천: 운천리 외곽에 흐르는 개울이다. 이 하천에 가마솥처럼 생긴 소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3) 농바위: 피란골 서남쪽에 있는 바위로 장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54) 벼락바위: 일교다리 위 동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에 이 바위에서 지네가 여인의 가슴을 잘라먹었다고 한다. 이때 하늘이 바위에 벼락을 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55) 상노바위: 도독골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향로처럼 생긴 바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56) 사호뱃나루: 사호 앞에 있는 섬내강(한탄강)변이다.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부락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57) 외판소: 샛골 동남쪽 개울에 있는 소이다. 외파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58) 용회밭구미: 이교다리 밑 개울에 있는 굴로 매우 깊었다. 모양이 바가지처럼 둥글게 생겼고 굴에서 용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용회밭구미에서 명주실 한 꾸러미를 풀어 넣으면 송장그미소로 나온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59) 우물목이고개: 점말에서 윗가는골을 거쳐 우물목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우물목으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0) 이교다리: 용회밭구미 앞에 있는 다리로 산정리에서 두 번째 다리이기 때문에 이교다리라고 부른다.

61) 일교다리: 이교다리 밑에 있는 다리로 산정리에서 첫 번째 다리이기 때문에 일교다리라고 부른다.

(4) 6.25 경험담

1) 할아버지의 6·25전쟁 이야기

제보자의 원래 고향은 철원이다. 전쟁이 나도 피난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았는데, 국군이 진격하던 무렵 후퇴하던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북쪽으로 안가면 다 총으로 쏜다.”고 협박을 하는 통에 어쩔 수없이 피난을 가게 되었다.

피난을 가던 도중, 갑작스런 미군의 비행기 폭격으로 인해 인민군들이 피난 가는 사람들을 관리를 잘 못하는 틈을 타 가족 모두가 뒤로 빠져나와 이남 쪽으로 도망을 갔다. 운 좋게도 국군이 와서 남쪽으로 실어갔다. 처음에 국군들이 경기도 광주에서 내려줬는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포천의 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천막만 달랑 쳐놓은 수용소 생활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 그 당시 제보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활이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휴전 이후 운천 4리로 입주시켜서 그때부터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3.2.5 관인면 중리(中里)

<제보자>

이우형(51): 향토사학자, 마을 토박이

김한길(82)

김원구(75)

임종성(78): 중1리 노인회장



(1) 유래 및 생활

1) 유래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속하는 법정리로, 중리는 관인면의 6개 법정리 중 하나이다. 관인면의 중앙에 있다고 하여 중말 또는 중동이라 불렀다.

중리는 본래 강원도 철원군 관인면이었으나 1895년(고종 32)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12년 행정 구역은 연천군 관인면 중리이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중리를 분할하여 관인면 부곡리와 사정리에 일부씩 편입시키고 관인면 중하리 전역을 병합하여 중리라 하였다.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 지역인 중리 전역이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가 6·25 전쟁 때 실지(失地)를 회복하여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이 이양되었다. 1983년 관인면이 포천군에 편입되어 포천군 관인면 중리가 되었으며,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이 도농 복합 시로 승격하면서 포천시 관인면 중리가 되었다.

남쪽과 동쪽 경계로 한탄강이 흐르며, 서쪽의 종자산(642.9m)을 비롯하여 동서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장산 계곡으로 향노천이 흘러 건지천으로 유입되고, 이 물이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지장산 계곡 앞쪽으로 마을이 있고 그 사이에 중리 저수지가 위치한다. 동서로 산이 둘러싸고 있어 계곡부를 흐르는 건지천을 따라 농경지와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국도 87호선이 중리를 세로 방향으로 지나간다. 문화 유적으로는 보가산 성지와 신흥사 터가 있다. 이 외에도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보고된 중리 문배들 유적, 중리 늘거리 유적, 중리 아랫심재 유적이 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보고된 중리 유적과 청동기 시대로 보고된 중리 마산 유적, 초기 철기 시대 이후로 보고된 중리 용수재울 유적도 있다.¹⁶⁾

중리는 뒤에는 지장산과 종자산을 앞에는 한탄강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교동, 사지목, 심재 등의 마을이 있다. 교동은 못에서 도롱뇽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데룡골이라고도 불린다. 사지목은 사기막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심재는 신흥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위, 아래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윗심재, 아랫심재로 불린다.

2) 마을의 생활

① 6.25 전쟁과 중리: 중리는 원래 초창기 관인면의 면소재지였을 정도로 6·25 전쟁 전 매우 큰 마을이었다.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많은 마을들이 폐허가 되었다. 실제로 관인면 냉정리 주민(이풍업)의 제보에 따르면 6.25 전쟁 중 이곳으로 피난을 왔는데 가도 가도 민가 하나 보이지 않았을 정도였다.(냉정리 마을의 6.25 경험담 참조) 이후 1954년에 중리는 연천군 관인면에 편입되어 군부대, 특히 이 지역의 미군 주도 하에 재건된다. 그 과정에서 전통 촌락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던 교동, 심재 등 중심 마을들이 복원될 수 있었다.

② 한탄강과 농수, 그리고 중리저수지: “한탄강은 농사로 쓸 수 있는 물이 세마지기밖에 없다.” 제보자(이우형)가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르신들에게 흔히 들었던 말이라고 했다. 한탄강의 주상절리는 사람들의 범접을 거부했고, 그래서 중리는 물은 많아도 척박한 땅이었고,

16)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참조, 중리

사람들의 삶 또한 팍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풍경은 일제 강점기 때 수리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변하게 된다. 양수기로 한탄강의 물을 끌어올려 개간되면서 중리 땅의 80%가 넘는 황무지들은 알찬 옥토로 바뀌었다. 중리가 살기 좋은 농촌이 된 데에는 중리 저수지의 영향도 크다. 잉여농산물처리법에 의해 밀가루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군의 원조로 이곳에 중리저수지가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농수의 공급이 더욱 원활해졌으며, 그 결과 더 이상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리 저수지 건설이 모든 사람에게 좋았던 것은 아니다. 중리 저수지로 인해 수몰된 마을의 주민들은 고향을 보고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제보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렇다. 제보자의 아버지는 6.25 전쟁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정처없이 피난길에 올라 타향살이를 하다가 휴전 후 고향이 그리워 중리를 다시 찾는다. 그러나 이미 고향은 저수지에 수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결국 새로 정붙일 곳을 찾아 중리 근방에서만 3-4차례나 이사 다닌 끝에 현 중리초등학교 근처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제보자의 부친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외지로 떠나야만 했다고 한다. 물론 눈에 흠이 들어가더라도 고향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 몇 가구가 저수지 인근에 터를 잡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한다.

③ 문뱃들 이야기: “<사격장 아이들>이라는 영화 알아요?” 늘거리 좌측, 옛 판거초등학교 터를 지나 문뱃들 마을로 향하면서 제보자(이우형)가 답사팀에게 건넨 말이다. 예전에 우연한 기회로 본 기억이 있어서 “피탄 줍던 아이들의 힘겨운 삶을 그린 이야기 아닌가요?”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니 제보자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여기(문뱃들)가 바로 그 영화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문뱃들의 슬픈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다.

문뱃들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휴전 이후 이곳은 사격장의 피탄을 주워 팔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먹고 살기 힘들던 1950-60년대, 사격장 주위에는 이런 종류의 마을이 어디에나 있었다. 당장 문뱃들 저편, 연천의 고문리도 그런 마을 중 하나였다.(자세한 내용은 연천읍 고문리 마을의 생활 참조) 살상용 무기가 머리 위로 오가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어 죽는 일이었다. 전자는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지만, 후자는 꿈쩍없이 죽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기 때문이며, 전자는 홀로 죽으면 끝이지만, 후자는 가족 모두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폭발 사고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격장 안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죽은 사람도 많았다. 당시 문뱃들에서 사격장 피탄을 줍다가 죽은 사람은 수백 명이 넘었다. 하도 많이 죽어서 시신을 그냥 사격장 안에 묻어두고 나온 경우도 태반이었다고 한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피탄은 어른을 따라 주워 와야 하는 일감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갖지 못한 희귀한 장난감이었다. 조심하라는 어른들의 당부 또는 경고는 피탄을 본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잠시 지워졌다. 그래서 또래의 아이들과 피탄을 갖고 노는 것은 당시 문뱃들 아이들에게는 일상이었다. 당연히 사고도 많이 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어린 시절 문뱃들에 살던 제보자의 친구들 중에는 사격장에서 주워온 포탄을 갖고 장난치다가 폭발 사고로 죽거나, 사격장 안에 들어갔다가 죽은 아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의 슬픈 역사는 영화 <사격장 아이들>로 고스란히 표출되었다.¹⁷⁾

17) <사격장 아이들>: 1967년 김수용 감독이 만든 영화로 각본은 장재화가 담당하였다. 실제로 사격장 마을을 답사한 후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남과 북의 분단과 근대화 물결이 일던 혼란한 시대

(2) 설화

1) 설화

옛날에 왕은 부인을 여럿 두었다. 궁예가 왕이 되니 욕심이 많아져서, 또 한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몇 백 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여우는 사람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러한 여우가 궁궐로 들어오니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비는 병이 나 드러누웠다. 왕이 용한 의사들을 다 불렀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궁에서 그런 일이 나니 이름 좀 알릴까 하고, 별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 한 사람이 '나는 잘 알지는 못하나 맥쫄은 안다'고 하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궁중에 가보라'고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병은 아닌데 꼭 사람 고기를 먹어야 나을 병'이라고 하였다. 또 '꼭 열세 살, 열네 살 정도 된 여자아이의 유방을 먹여야한다'고 하며, '좀 힘들겠다'고 했다. 옆의 사람이 말했다.

"아! 힘들게 뭐가 있어.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들어."

그래서 왕명이라면서 여자 하나를 빌려다가 가슴을 딱 베여 먹이니 왕비의 병이 나았다.

그리하여 이력저력 여섯 달이 지났는데, 왕비가 또 아프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꾸 여자아이를 잡아 먹이니, 4,5년이 지나자 사람이 무척 줄게 되었다. 그것도 꼭 열세 살, 열네 살 된 여자아이를 갖다 먹여서, 그때부터 일곱 살, 아홉 살에 시집가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집만 보내면 잡혀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왕건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죽이고 나면 나라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 군사를 일으켰다. 이에 궁예가 군사를 데리고 도망을 쳐서 여기에 있는 궁예성(포천군 창수면 중리)으로 왔다. 이 당시에 왕건에게 쫓겨 올라오면서 군사를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쌀 씻은 뿌연 물이 왕건 군사가 있는 곳까지 흘러내려 갔다고 한다. 거기에 성을 쌓는 동안에도 왕건이 자꾸 쳐들어오니, 궁예는 성만 쌓아 놓고 그곳에 하루만 머물고는 그냥 또 쫓겨갔다.

왕건이 또 계속 쫓아와서 도망간 데가 운천구에 있는 용해라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울음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울음산 저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함) 울면서 한탄을 했다. 그

에 휴전선 근처에 사는 해맑은 아이들과 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참교육을 그린 계몽 드라마 영화이다.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의 분단으로 휴전선이 세워지고, 근처에 사는 실향민 마을학교에 서울에서 교육받은 여선생 오지영(김지미 분)이 부임한다. 그렇게 첫 학교와 학생에 대한 설렘으로 부임한 그녀는 그곳의 아이들의 순수함에 감동하는 한편,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 없는 모습과 무지함에 실망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따르면서 저마다 의사나 비행기 조종사, 무용가의 꿈을 키우며 학교생활에도 열성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안도한다. 또한, 마을 근처 사격장에서 탄피와 파편을 주워 팔며, 어려운 살림에 보태는 등 집안 살림에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오지영은 연민과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월남한 실향민 영규 아버지 상현(허장강 분)은 아들이 열심히 탄피를 주워 판 돈을 술과 노름에 탕진하고, 용순은 어머니(정애란 분)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등 아이들의 상황은 공부하기에 더욱 열악하게 변한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 역시 생계비 마련을 위해 탄피를 줌다 위험지역에서 폭발사고를 당하며 정신적인 장애를 입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며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오지영 선생은 아이들을 물심양면 도우며, 관심과 애정을 준다. 또한, 아이들의 부모 역시 계몽시키려 노력한다. 그녀의 노력으로 마을 어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에 대한 애정을 그린 영화로 교훈적인 의도와 동시에 사회구조의 모순을 비판한 사실주의 영화라는 평을 받았다. 제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기술상과 특별상, 작품상을 받았다. 제5회 청룡영화상에서 촬영상과 감독상을, 제11회 부일영화제에서 남우조연상을, 제3회 대일영화상에서 작품상을 받았다.(네이버 지식백과) 사격장의 아이들 (Children in the Firing Range)

결과 한탄강이 생겼다고 한다.

왕건은 궁예를 잡을 수 있었지만, 잘못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난 사람이 날까봐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추방시켰다. 궁예가 도망갈 때, 남자들은 돌을 쳐다주고 여자들은 돌을 날라와, 사람들이 그 돌맹이를 쌓아놓고 던졌다. 그래서 강원도 북개(철원에서 삼십리쯤 되는 곳에 위치)라는 곳에서 돌무덤에 묻혀 죽었다.

그런데 왕건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역적이 된 궁예는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흐른 후에 고종 때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자고 하며, 만주를 침범해 그것을 나누자고 했다. 고종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 을사조약을 맺었다. 이 때 일본이 한국을 빌려달라고 해서, 서로 의형제를 맺은 것과 같으니 승낙을 했다. 그러자 일본은 인천, 부산, 원산으로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 무기를 확보했다. 그 뒤에 일본이 서울에서 원산까지 경원선을 닦는데, 철로가 북개를 지나면 길이 조금 구부러지고 능선을 끊으면 좀 가까웠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닦자, 일본인이 자꾸 이유 없이 죽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어떤 한 노인이 말했다.

“거기 끊는 데가 어디 있다고. 그 앞에 그래도 일개 왕의 무덤이 있는데, 아무리 역적으로 죽었지만 거길 끊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수 밖에 없지.”

이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듣고, 그 중 한 사람이 일본인에게 고자질했다. 그러자 순경들이 나와서 그 노인을 붙잡으니까, 그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 말했다.

“길을 그렇게 닦지 말고 그 앞으로 다시 재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 당신들이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길을 다 닦고서 한 번 제사를 또 지내십시오.”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돼지를 잡고 제사를 지내고 길을 닦으니, 사고 하나없이 원산까지 철도를 놓을 수 있었다. 기차가 서울부터 개통을 하는데, 북개라는 언덕에 와서는 올라가질 못했다. 그때 다시 노인의 말이 생각이 나서, 궁예왕의 무덤 앞에다 제사를 지냈다. 한 번 절을 하고 일어나니까 잔에 부어 놓은 술이 없어졌다. 절하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술이 없어지니까, 또 한 잔을 부어 놓고 절을 했다. 그랬더니 또 부어 놓은 술의 반이 줄었다. 계속해서 술 석 잔을 다 올리니 맨 끝의 잔은 그냥 흔들리기만 하였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자, 노인이 음력으로 시월 보름날이면 잊지 말고 제사를 지내주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인에 의해 후대에 와서 궁예왕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궁예왕은 역적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제사를 못 얻어먹고, 일본인이 기차를 개통하는 바람에 제사를 얻어먹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은 ‘한번 지냈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해,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니 또 기차가 가지를 앓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인들은 8·15 해방 전까지 제사를 지내 주었다고 한다.¹⁸⁾

2) 전설

가마소는 교동 남쪽에 있는 소(沼)로 가마솔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큰 가마소’와 ‘작은 가마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가마소 한곳만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어느 신랑과 신부가 제비 바위 밑에 난 좁은 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마를 지고 가던 가마꾼이 그만 발을 헛디뎠다. 그만 소로 풍덩 빠지게 말았다. 그와 동시에 뒤따르던 가마도 빠지고 가마를 지던 가마꾼도 빠졌다. 또한 말을 타고 가던 신랑도 신부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다가 같이 빠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사람들은 그

18) 이근영·이병찬, 『포천의 설화』, 포천문화원, 2000, 44-46쪽.

길이 흉하다고 하여 소를 메워버렸다.¹⁹⁾

3) 전설

어느 날 승려가 시주를 받으려고, 이 마을을 돌고 있을 때 어디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보리 쪼으러 갔다”라는 소리가 들려 왔다. 승려가 괴이하게 여겨 들어보니, 물속에서 커다란 잉어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승려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잉어를 잡아먹지 말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잉어를 잡아먹고 말았다. 그 뒤 이 마을은 마치 익다가 썩어 버리는 문배처럼 차츰 망해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문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일설에는 어느 바위 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여 문바위, 한자로 문암(文岩)이 되었다고도 한다.²⁰⁾

19) 앞의 책, 284쪽.

20) 포천문화원 편, 『포천의 지명유래집』, 중리판, 2006. 542쪽.

(3) 지명유래

1) 늘거리: 신우골에서 서울로 가는 한탄강의 영노교 건너에 있는 마을로 중리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 늘거리의 한탄강 맞은편이 운산리이다. 1920년경 일제시대 때 큰 광고판을 세웠던 자리에 형성된 마을이라 해서 늘거리 또는 늘거리라 하였고, 한자로는 판거동(板巨洞)으로 불렸다. 이에 대해 주민(이우형)의 제보에 따르면 원래 늘거리는 종자산의 산자락에 펼쳐진 모양 때문에 붙은 이름이며, 따라서 판거라는 이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한다. 늘거리가 원래부터의 지명인지, 아니면 판거동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여기에서 유추하여 늘거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의 지명은 순 한글이 먼저 생기고, 이를 한자로 번역한 이름이 나중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늘거리가 이후에 판거동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²¹⁾ 이는 추후 확인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다만, 실제로 본 늘거리의 풍경은 산자락에 완만하게 늘어진 모양새, 즉 늘거리이다. 한편, 늘거리 아래 현재의 영노교 부근은 예로부터 배가 왕래하던 배터거리이다. 한탄강은 강변이 주상절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강변이 완만한 곳이 있으면 그곳이 곧 배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역시 그런 곳 중 하나이다.



그림 29 늘거리, 강변으로 늘어진 모양새를 하고 있다.

2) 늘거리고개: 늘거리에서 창수면 오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늘거리 마을 명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3) 곧은 여울: 한자로는 직탄이라고 부른다. 늘거리 앞에 위치한 한탄강이 곧게 뻗어 있어서 곧은 여울이라고 불렸다. 배터로, 이곳이 이동교통로였다. 철원에서 운천 쪽으로 나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이곳으로 나가야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다. 운산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남북이 서로 점령하기 위해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던 곳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인이 바뀌었으며, 특히 전쟁 막바지에 연합군의 탱크 부대가 이곳을 지나 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21) 한글과 한자어의 선후 문제는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이번 답사는 학술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는 추후 확인해야 할 문제로 남겨둔다.



그림 31 되룡골(교동), 산이 마을을 가리고 둘러앉아 있는 모양새이다. 하얀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이 되룡골.

6) 명우리 협곡: 수리봉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명우리의 유래는 목에 금빛 줄무늬가 있는 우리나라 토종 수달의 한 종을 ‘명’이라고 불렀다. 그 명이 사는 강, 강이 乙자 형태이기 때문에 ‘명우리’가 되었고, 다시 발음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명우리’가 되었다고 한다.²⁴⁾ 가다가 비탈에 넘어져서 명들어서 명우리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실제로 소회산리의 주민(안성구) 제보에 따르면 돌도 검고, 바닥도 검고 사람 다니기가 불편해서 명우리 협곡이라고 했다고 한다. 충격을 받아 명이 든 것을 명울이라고 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명우리는 명울의 잘못된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명우리=명울’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명이 대체로 지리적·지형적·역사적 이유로 인해 유래된 것임을 고려하면, 명우리 협곡은 수달이 사는 乙자 모양의 협곡이라는 설이 보다 정확한 유래로 보인다.

24) 명우리는 ‘명’과 ‘우리’가 합쳐진 지명으로 명이란 ‘온몸이 황금빛 털로 덮힌 수달’을 가리키고 올리는 명우리의 지형이 한자의 ‘을(乙)’자처럼 크게 곡류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즉 명우리란 ‘황금빛 털을 가진 수달이 사는, 을(乙)자처럼 강물이 휘어지며 흐르는 곳’이란 뜻이다.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은 양쪽 기슭의 높이가 20~30m 내외의 주상 절리(柱狀節理)(뜨거운 용암이 굳을 때 부피가 수축되면서 돌기둥 모양으로 발달한 나란한 결)로 이루어졌으며 길이가 약 4km에 이른다. 협곡 구간에는 주상 절리의 침식과 박리(剝離)로 인해 형성된 하식 동굴 약 30여 기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높은 절벽인 하식애(河蝕崖)와 고토양층(古土壤層)의 발달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지질과 지형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의 뛰어난 자연 경관과 역사적·문화적 보존 가치를 인정하여 2012년 12월 17일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3년 2월 6일 명승 제94호로 지정하였다. 총면적은 74만 4559㎡이다. 국유 및 사유지이며, 관리는 포천시에서 하고 있다.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은 강의 양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차량이나 걸어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래프팅을 이용하여 한탄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볼 수 있다. 2013년 현재 포천 한탄강 일대에는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을 비롯하여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천연기념물 제436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 비둘기강 폭포(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아우라지 배개 용암(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화적연(명승 제93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생태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참조.



그림 32 명우리 협곡

7) 문뱃들: 한탄강에서 바라볼 때 늘거리의 좌측 산자락, 현재의 사격장 입구에 있던 마을. 마을 뒤 종자산 산등성이에 문(대문)처럼 생긴 수직 절벽의 바위들이 있는데 이를 문바위라고 부른다. 그 문바위에서 유래하여 문바위들-문뱃들로 불리게 되었다. 한자어로는 ‘문암동(門岩里)’이라 부른다. 사격장의 피탄을 주워 팔던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마을이다.²⁵⁾ 문뱃들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자세한 내용은 중리 마을의 설화 참조)과 함께 휴전 이후 피탄을 줬던 시절의 슬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자세한 내용은 중리 마을의 생활 참조)

8) 사기막: 연천읍 부곡리에 분청사기, 청자, 옹기, 백자를 굽던 가마터가 네 군데가 있다. 중리에서 그 가마터로 넘어가는 고래를 사기막 고개라고 부른다. 달리 사지목이라고도 한다.

9) 신흥동: 관인면 소재지 탄동리 남쪽에 위치하며, 신흥사라는 절터가 있던 마을이라 하여 신흥동이라 불린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1916년 부곡리에서 이곳 중리로 면사무소가 이전된 후 새로 일어나라는 뜻으로 신흥동이라 했다고도 하며 신우골이라고도 한다.²⁶⁾ 제보자(이우형)에 따르면 신흥동의 옛 이름은 양짓말이다. 해가 드는 동네라고 해서 양짓말이라 해고, 저수지 안쪽 동네를 응달말이라고 불렀다.

10) 신흥사지: 신흥동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절터. 현재는 보개산 등산로의 일부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²⁷⁾

25) 문뱃들은 마을 동서로 산지가 자리잡고 있다. 남북으로 흐르는 지류를 따라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자연마을로는 가운데말, 건말, 방죽말, 사양계, 의시물, 작은 문암골, 큰 문암골, 해방촌, 혁장리 등이 있다. 문암리는 큰 바위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방죽말은 방죽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양계는 혁장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해가 질 때까지 비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샘개는 좋은 샘이 나던 마을이다. 해방촌은 사양계 북쪽에 새로 된 마을로, 1950년 6·25전쟁 때 이북 피난민들이 모여 조성된 마을이다. 혁장리는 큰 돌담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석장동이라고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문암리 (Munam-ri, 紋岩里) (두산백과)

26) 포천문화원 편, 『포천의 지명유래집』, 중리편, 2006. 542쪽.

2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에 있는 고려 시대 절터로, 신흥사 터의 정확한 창건 연대나 성립 후의 활동은 알 수 없으나, 신흥사 터에서 발견된 석조 여래 좌상은 고려 중기의 양식을 띠고 있어서 고려

11) 심동, 심재: 신우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사방 어느 곳을 보아도 언덕은 높고 마을이 깊어 심동(深洞)이라 하였는데 심재라고도 부른다.²⁸⁾ 그러나 제보자(이우형)에 따르면 심재의 골짜기가 1km가 채 되지 않을 만큼 깊지 않고, 깊을 심(深)과 한글 재의 결합이 어색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지명들 중 심마니들이 터를 잡고 살던 곳을 '심골'이라 했으나 이 역시 '심재'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12) 아랫심재: 심재 아래쪽의 마을이다. 하심동 또는 하심현이라고도 부른다.



그림 33 중리 아랫심재

13) 윗심재: 심재 위쪽의 마을로 상심동 또는 상심현이라고도 부른다.

14) 가마소: 교동 남쪽에 있는 소(沼)로 가마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가마솥처럼 둥근 데가 있고, 그 지류 중에서 가장 깊다. 원래는 7~8m 정도 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메워졌으며 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자세한 내용은 중리 마을의 설화 참조)
가마소는 깊은 곳이어서 물이 검정빛깔의 띠기 때문에 검은소, 또는 거무소로도 불렸다고 한다. 또한 가마, 거머, 고모, 마고는 비슷하게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신앙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고 한다. 현무암 지대인 한탄강은 이처럼 갑자기 깊어지는 소가 많은데, 실제로 한탄강 줄기에서 가마소라는 지명만 수십 개에 이른다.

중기부터 절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6·25 전쟁 이전까지 절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존재 형태나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신흥사 터는 포천시 관인면 중리에 위치한 보가산성을 지나 죽동을 향해 오르는 군용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신흥사와 관련된 조사 기록은 1942년 발간된 조선 총독부의 『조선 보물 고적 조사 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처음 나타나며, 1977년 발간된 문화재 관리국의 『문화 유적 총람』 자료에도 신흥사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만 정확한 발굴 조사는 1997년경 단국 대학교 사학과에 의해 이루어졌다. 발굴 조사에 대한 기록으로 확인하였을 때, 따로 출토된 유물은 확인할 수 없으며 신흥사 터 석조 여래 좌상이 남아 있다.

현재 신흥사 터는 굿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신흥사 터 앞쪽에는 작은 계곡이 있어 많은 유람객이 찾고 있다. 전 지역에는 낙엽송이 촘촘히 심어져 있는데, 법당 터로 추정되는 지역에는 플라스틱 볼상 1구 및 촛불을 밝혔던 흔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도 불공을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참조.

28) 포천문화원 편, 『포천의 지명유래집』, 중리편 포천시청, 2006. 542쪽.

15) 가마소거리들: 가마소 앞에 있는 들로 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16) 보개산: 철원과 연천의 통현리까지 연결되는 산이다. 군사지역이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 오히려 절경이 더 많다고 한다.²⁹⁾ 현재는 한정된 등산로를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등산코스로 개발되었다.

17) 용소: 되룡골 근처, 가마소 위쪽에 있는 소이다. 용이 물을 열고 올라갔다고 해서 용수개비³⁰⁾라고도 불린다. 분위기가 신비로운 곳이라 한다.

18) 병바위: 마산 위쪽, 수리부엉이가 인근에 산다.

19) (고)남산: 중리초등학교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마산의 뒤쪽에 위치해 있다. 철원에 서는 이 산을 고남산이라고 부르는데 중리에서는 그저 남산이라고 부른다. 지도상에는 고남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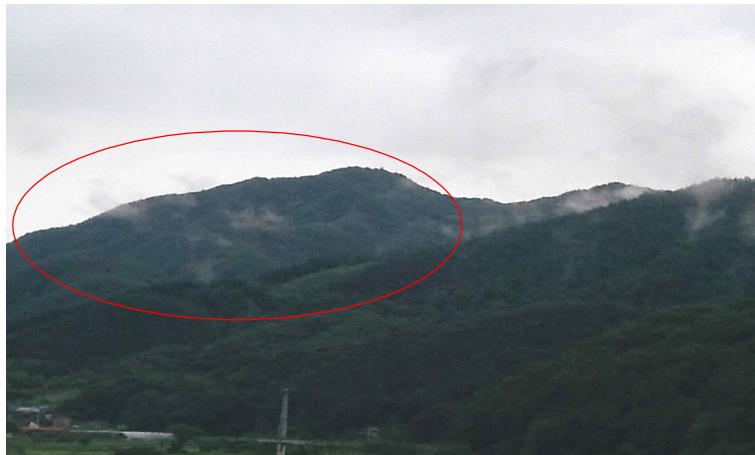


그림 34 붉은 원이 남산이고 앞에 위치한 산등성이가 마산이다.

20) 마산: 보통 지명에서는 한쪽이 90도 수직 절벽으로 생긴 것을 ‘말구리’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말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마산’이라 불렀다. 말의 꼬리부분에 위치한 마을을 ‘맥동’이라 불렀다. 보리 맥(麥)자를 쓰는데, 말이 용변을 봐서 유달리 보리가 많이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맥동(맥골)은 ‘벼락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제보자(이우형)가 어릴 때부터 ‘벼락골’에는 벼락이 많이 쳤다고 한다.

29)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과 포천시 관인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고도 : 877m). 최고봉인 지장봉이 마치 승려의 머리같이 생긴 바윗덩이를 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명칭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현 동북쪽 20리 철원 경계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최고봉인 지장봉과 화인봉, 북대, 삼형제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이어주는 주능선은 기복이 심하다. 동쪽 산줄기에는 무너진 석축이 있는데, 태봉의 왕 궁예가 부하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은거했다는 보개산성(일명 궁예성)의 유적이다. 보개산성 주변에는 대전지, 지장계곡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개산 (寶蓋山, Bogaesan)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국토지리정보원)

30) 개비는 날아오른다는 뜻이다.



그림 35 중리 마산, 말의 머리 부분이다.



그림 36 마산의 꼬리, 산 아래의 마을이 맥골(배락골)이다.

21) 종자산: 중리의 입구, 영노교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 이 산의 지명 유래에는 매우 다양한 설이 있다. 우선 『포천의 지명유래집』에는 궁예가 태봉국왕으로 있을 때 인구 칠만이 이 산에서 무사히 난을 피하여 인종(人種)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옛날 대홍수 때 어느 부부가 이 산 정상부로 피신을 했었는데 부근이 다 침수되고 이곳만 침수되지 않아 자손을 퍼뜨릴 수 있었다는 설을 실어 놓았다.³¹⁾ 또 《한국향토문화전자

3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와 연천군 연천읍에 걸쳐 있는 산이다. 종자산 남동쪽 산 중턱에 바위굴이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서 3대 독자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백일기도를 올린 후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종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같은 이유로 씨앗산이라고도 불린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산의 정상이 마치 종지를 뒤집어 놓은 형상처럼 생겼다고 하여 종지산으로도 불려오다가 한자로 표기될 때 종자산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높이 642.8m의 종자산은 포천시의 서북쪽에 위치해 연천군과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모산은 지장봉이고, 동쪽으로 한탄강을 끼고 기암석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솟아 있다. 북쪽 산기슭에는 중리지가 있으며, 동쪽 산자락에는 국도 87호선이 남북으로 뚫려 있다. 종자산의 정상으로 오르는 산행 길은 5개이다. 종자산 남쪽에 위치한 중리의 해 뜨는 마을에서 오르는 길이 하나 있고, 종자산 동쪽의 중 3리 마을 회관에서 출발하여 오르는 길이 2개, 그리고 종자산 북쪽의 중리지에서 출발하여 오르는 길이 2개 있다. 종자산에는 유명한 사찰이나 대형 폭포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탄강의 협곡과 기암괴석의 산봉우리가 어우러져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다. 정상에 오르면 주변이 비교적 탁 트여 있어 전망이 좋으며, 개성의 송악산이나 멀리 철원평야 까지도 시야에 들어온다. 진달래와 단풍이 아름답고 북쪽 능선으로는 싸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

대전»에는 이 산의 남동쪽 산 중턱에 바위굴이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서 3대 독자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백일기도를 올린 후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종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같은 이유로 씨앗산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³²⁾ 한편, 제보(이우형)에 따르면 이 산 정상외의 모양이 ‘종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종지산으로 불린다고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옛날 홍수가 났을 때 다 물에 잠기고 종지만큼 남았다고 해서 종지산이라 불렀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의 지명이 대체로 역사적 사건이나 지역의 생김새, 혹은 지형적 특징 등으로부터 유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예(역사), 종지(형상), 홍수(한탄강)는 모두 종자산(종지산)의 지명 유래로서 가능성이 있다. 어쨌거나 이처럼 다양한 지명 유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산이 예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성시되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37 구름에 가려진 산이 종자산(종지산)이다.

22) 은장산(금장산): 은장산은 영노교에서 보았을 때 북동쪽에 위치해있다. 금과 은이 매장되어 있고 제보자(이우형)에 따르면 일제시대 때 이곳에 광산이 있었으며, 아연이나 구리도 나온다고 한다.(자세한 사항은 대회산리 지명 유래 참조)

23) 바늘고지: 데룡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24) 불무산: 부처님이 춤을 춘다고 해서 불무산이다.(자세한 사항은 대회산리 지명 유래 참조)³³⁾

25) 약수동: 늘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유명한 약수가 있던 곳이라 약수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26) 배수거리들: 중리에 있는 들이다. 배를 건너는 지점의 옆에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3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참조)
 33) 이하는 『포천의 지명유래집』(포천문화원, 2006)에서 발췌하였다.

27) 앞벌: 교동 앞에 있는 들이다. 마을 앞에 있어서 앞들이 되었다.

28) 옥가마소들: 옥가마소가 위치한 들이다. 옥가마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 29) 가래나무골: 아랫십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30) 고매골: 두루명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곰의 굴이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31) 궁골: 신흥동 서쪽 종자산 중턱이다. 궁예 군사의 훈련장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32) 당골: 신흥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33) 독짓골: 삼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34) 두루명달: 데룡골 동쪽 수리봉에 있는 골짜기로 밭도 아니고 산도 아니면서 돌만 많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 35) 샘골: 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많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36) 큰샘골: 샘골의 큰 골짜기이다.
- 37) 작은샘골: 샘골의 작은 골짜기이다.
- 38) 석회광산: 데룡골 동쪽 수리봉 밑에 있는 석회광산이다.
- 39) 수리봉(鸞峰): 신흥동 동쪽에 있는 산이다. 산의 모양이 매독수리와 같다하여 수리봉이라 하며 팔랑소의 물고기를 노려보는 형상이라고 한다.
- 40) 안산(案山), 노적봉: 교동 앞에 있는 산으로 노적가리처럼 생겨서 노적봉이라 한다.
- 41) 한세울: 독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42) 향로봉: 큰골 서쪽 보개산에 있는 봉우리이다. 산정상의 모양이 향로와 같다하여 향로봉이라 부른다.
- 43) 애태골: 신흥동 서북간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아기시신을 화장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 44) 큰골: 삼형제 바위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45) 수레봉, 술에봉: 술을 담겼는데 술이 넘쳐서 골짜기가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6) 보개산: 신흥동 서쪽에 있는 산이다.

47) 작은개: 용소 남쪽에 있는 작은 개울이다. 작은 개울이라는 뜻으로 작은개가 되었다.

48) 갯서고개: 교동에서 삼율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개미허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49) 대궐터(大闕堡): 태봉국왕 궁예가 피란하여 머물던 대궐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성(石城)이 남아 있다.

50) 임금바위: 대궐터 옆에 있는 바위이다. 태봉국 궁예왕이 앉았던 바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1) 삼형제바위: 부곡리 지장골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3개의 바위가 나란히 다정하게 솟아있어서 삼형제바위라 하였다고 한다.

52) 독바위: 아랫심재 동남쪽 한탄강 물 가운데 서있는 바위이다. 물 가운데 홀로 우뚝하게 서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53) 두멍소: 할미재고개 밑에 있는 소(沼)이다. 모양이 무쇠두멍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4) 망월소(望月沼), 보름소: 종자산 남쪽 한탄강 줄기에 있는 소이다. 이곳에서만 동남향이 띄여 있어 보름달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 해서 보름소 또는 망월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옛날 어느 노인이 명주실꾸리에 절구깹이를 매여 소에 넣고 풀어보았더니 보름동안 실이 풀리고 멎었다고 하여 보름소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55) 배다리: 신흥동 앞개울에 있는 다리이다. 조선시대 팔랑소를 수원으로 하는 배다리(판자를 U자형으로 만들거나 통나무를 U자형으로 홈을 파서 개울을 건너질러 놓고 물이 흐르게 하여 논에 물을 댐)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지만 배다리 자리라고 하여 배다리가 되었다.

56) 벼락바위: 교동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57) 새재고개, 새작고개(鳥峴): 교동에서 사정리 사종동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이다.

58) 정승바위, 상암(相岩): 삼형제 바위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태봉국 궁예왕이 피신할 때 정승이 이 바위에서 망을 봤다 하여 정승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59) 시구이: 데룡골에서 석회광산으로 가는 길이다.

60) 약물터: 고매골에 있는 약수터이다.

61) 옥가마소: 아랫심재 앞에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소(沼)이다. 궁예가 옥가마를 타고 와서 목욕을 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62) 용담밭: 신흥동에 있는 밭이다.

63) 중리저수지: 신흥동 서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중리 관내에 큰 저수지이므로 지명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64) 중리고개, 사기막고개: 중리에서 사기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중리와 사기막을 왕래하는 고개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65) 팔랑소: 신흥동 북쪽에 있는 수량(水量)이 많기로 이름난 소이다. 옛날 이 소(沼)에 빠진 소(牛)를 구하기 위하여 8남8매가 차례로 뛰어들었으나 소와 팔남매가 모두 익사하였다고 하여 팔남매소라 하여 오다가 팔랑소가 되었다고 한다.

66) 피밭자리: 새작골 밑에 있는 밭으로 피를 많이 심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67) 할미재고개, 노고현(老姑峴): 중리에 있는 고개이다. 길이 꼬불꼬불하고 넘기가 힘든 고개여서 할머니가 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힘이 없는 할머니에 비유하여 할미재고개라고 부르는데 노고현(老姑峴)이라고도 한다.

68) 진달래소: 신흥동 동남쪽에 흐르는 개울에 있는 소(沼)이다.

69) 막탁골, 마타골: 신흥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종자봉의 마지막 골짜기이다.

70) 삼밭골: 샘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4) 6.25 경험담

1)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6.25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마을의 토박이로, 그리고 향토사학자로 다년간 중리는 물론 경기 북부의 6.25 전쟁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중리와 관련된 제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25 발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철원 전체 인구가 종전 후 수복됐을 때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철원 인구의 75% 이상이 모두 북한으로 넘어갔다(연천은 한 65% 넘어갔다). 남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전쟁 1세대들이 솔직담백하게 전쟁 경험담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산당보다 국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험담이 더 많았고, 전쟁 1세대들을 취재하다 보면 그들 이야기의 공통분모가 공산당은 그리 심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미군이나 국군의 반인륜적 행위가 더 많았으니, 이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함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6.25 전쟁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동네 어르신들은 낮에는 국군 불러다가 술 먹이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치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밤에는 인민군들을 불러다가 닭 잡아주면서 ‘사람은 다치면 안 된다’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2) 김원구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6.25때는 8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여기서 대전까지 28일을 걸어간 사람이

야.” 제보자의 6.25에 대한 기억은 피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어린 나이에 한 달에 가까운 기간을 차 한 번 얻어 타지 못하고 걸어서 대전까지 피란을 갔던 어르신의 이야기다. 당시 인민군들은 국군이 쳐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이동하려 했다. 어르신의 아버지는 담터 개울에서 이동 중이던 가족들에게 몰래 신호를 보내어 대열을 이탈했다. 앞뒤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이었다. 계곡을 지나는 사이에 중간 개울로 빠져 제보자와 그의 가족들은 미친 듯이 달렸다. ‘이제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담터 개울의 큰집으로 달렸다. 그곳에서 국군과 합류하여 군인들과 함께 달리는데 총알이 비 오듯 쏟아졌다.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만 다들 살기 위해 미친 듯이 군인들의 뒤를 쫓았다. 공병대가 한탄강을 건널 다리를 놓고서 한쪽으로는 민간인, 한쪽으로는 군인들이 건넜다. 그렇게 포천으로 가면 포천후퇴, 의정부로 가면 의정부후퇴, 서울로 갔더니 서울후퇴, 수원으로 갔더니 수원후퇴, 이렇게 대전까지 장장 28일간의 피란길이 된 것이다. “길옆에서 자고, 강통에 밥을 끓여 먹고, 양놈(미군)들 짬밥 얻어먹으면서 고생 많았지.” 제보자는 외갓집이 있는 경상도 안동으로 피란했다가 중리저수지를 지을 때, 돌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다시 중리로 돌아왔다.

3) (78) 할아버지의 6.25 이야기

6.25 전쟁 당시 처음 인민군이 남하할 때는 집에 있었는데,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북상할 때 피난을 갔다. 미군들은 민간인들을 다 피란시켜서 포천으로 갔는데, 또 군인이 포천으로 들어와서(어떤 군인이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평택으로 갔다. 아버지하고는 헤어졌고, 어머니와 나, 여동생 셋이서 피란을 하다가 나 혼자 남았어. 포천에서 겨우 다시 만나서 전라도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다. 우리 형님도 여기가 수복되니까 인민군복 입고서 도망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인민군 세 명이 밥을 얻어먹으러 집에 왔었다. 마침 국군 비행기가 정찰을 돌다가 인민군들을 발견하고는 공격했다. 한 놈은 그 자리에서 죽고, 다른 두 놈은 폭격을 피해서 도망갔다.

4) 김한길(82)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6.25때 제보자의 나이는 18살이었다. 당시 인민군 학도병으로 연천에 한 고등학교로 집결하라는 소집령이 떨어졌다. 제보자는 내일이 집결이니 집을 나섰다.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가다가 인민군과 마주쳤다. “동무, 군인 왜 안 갔느냐?” “내일 집결이니 마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가려고 그러합니다.” 말을 돌리며 미심쩍은 눈빛의 인민군을 뒤로 하고 최대한 태연하게 걸었다.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그 때 인민군이 제보자를 불렀다. “나도 같이 가자우” 그렇게 둘이서 함께 도망을 쳤다. 도망을 가다가 노인만 둘 사는 동네로 가서 밥그릇에 소금을 뿌리고 깨소금을 뿌아서 주먹밥을 만들어서는 다시 도망을 가려는데 경비를 보던 동네 청년과 마주쳤다. “넌 뭐야?” “학교로 집결이라 지금 가는 중이라.” 사람들과 자꾸 마주치니 둘러치기도 어려워 지장골(지장산 안의 골짜기를 지장골이라 부른다)을 돌아서 조금 내려가면 물도 있고, 굴도 있는데 그 곳에 숨었다. 그 굴에서 아침 안개가 끼었을 때만 밥을 해서 먹을 수가 있었다. 밥짓는 연기 때문에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는데, 군인들이 북상하기에 몰래 숨어서 봤는데, 주먹밥을 만들었던 그 두 집에 군인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민군은 아니고 국군이었다. 인민군은 무장을 안 하고 노랑게 입었었는데 그들은 무장을 하고 파랑게 입고 있

었다. 그대로 굴속에 있다가는 들통나기가 십상이라 밤중에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너 어디 있었냐? 우리는 너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 너 어디다가 감춰놨는지 내놓으라고 인민군들에 다녔다.” 가족들은 모두 짐을 꾸리고 함께 전라도로 피란했다.

3.2.6. 영북면 소회산리(小回山里)

<제보자>

안성구(79): 현 노인회장, 소회산리에서 400년 이상 거주.

최응호(82): 마을 토박이, 600년 이상 거주.

정근모(77) : 마을 토박이

오명구(53) : 현 이장, 아버지 대부터 거주.

이옥선(70) : 정근모 씨의 부인, 시집와서부터 쭉 살았음.



(1) 유래 및 생활

1) 유래

소회산리는 작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소회산(小回山)이라 하였다. 1912년 행정 구역은 영평군 북면 소회산리였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이름 변경 없이 소회산리라 하고 포천군 영북면에 편입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 지역인 소회산리 전역이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가 6·25 전쟁 때 실지(失地)를 회복하여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이 이양되었다.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이 도·농 복합시로 승격하면서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가 되었다. 소회산리는 은장산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사방이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에는 한탄강이 지나며 이를 경계로 관인면 사정리와 마주하고 있다.³⁴⁾

3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참조 (소회산리)

현재의 소회산리 이장의 말에 의하면 소회산리 실 거주 호수는 50호 정도 된다고 한다. 또한 소회산리는 안씨, 최씨, 신씨의 집성촌이었다.



그림 39 소회산리 마을의 입구

2) 생활

① 한탄강과 소회산리: 소회산리 마을은 서남 방향으로 흐르는 한탄강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6.25 이전까지만 해도 한탄강을 북강이라고 불렀다 한다. 한탄강의 물살이 모두 험한 것은 아니어서 물살이 완만해지거나 강변으로의 접근이 쉬운 곳은 천혜의 놀이터가 되었다. 소회산리, 또는 소회산리의 인근 지역인 곧은여울, 검정여울, 뗏소 등이 놀이터의 이름들이다. 한탄강만 노하지 않으면 물고기는 언제든 쉽게 잡혔다. 쏘가리, 불거지, 날뛰기, 메기 등 물고기를 매일 끓여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한탄강은 볼거리가 아니라 즐길거리였고,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생활의 공간이었다.

② 소회산리와 마을제사: 소회산리를 감싸고 있는 뒷산에 올라가면 네모반듯하고 엄청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이름은 선바위이다. 그 선바위에서 매년 9월 9일에 통돼지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낸다. 원래는 장소가 자주 바뀌었는데, 약 10여 년 전부터는 제사터가 이곳으로 고정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서낭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3월 3일에 큰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광복이 되고 나서부터는 폐지되었다고 한다. 38선 이북 지역에 속한 탓에 소회산리는 광복 후 북한의 관할에 놓였고, 당시 미신타파라는 명목으로 인민군이 서낭당에 불려 질러버렸다. 그렇게 한 마을의 안녕을 지내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져버렸다. 전쟁 후 아쉽게도 다시 복원되지는 않았다. 그곳에 군부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다른 곳에 서낭당을 마련했다. 지금도 무당들이 이곳에 천을 걸고 제사를 지내며 굿을 하기도 한다.

③ 이옥선 할머니의 나물캐기 : 신성봉(불무산)은 소회산리와 대회산리를 잇는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을 말한다. 제보자(이옥선 할머니)에 의하면 할머니는 시집와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산에 나물을 캐러 많이 다니셨다고 한다. 예전에는 산에 들짐승도 많고, 취나물, 고사리 등 나물이 엄청 많았다. 그러다가 약 47년 전 즈음 산에 인공으로 잣나무를 심었는데, 그 후로는 나물이 자라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나물을 캐러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매우 드

물고 그나마도 여가나 취미의 목적이 더 크다고 한다.

(2) 설화

소회산리에서 전해오는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⁵⁾

1)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화냥 바위’라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맞보고 서 있는 두 개의 바위였다. ‘화냥 바위’ 때문에 그 마을에 화냥이 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바위 밑에서 제단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사람들이 믿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만일 마을에서 백서방네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냥 바위’에다 ‘백서방네’라고 말을 하며 돌을 던진다. 그러면 ‘백서방네 부인이 화냥이 났다’고 한다.

2) 호랑봉

큰집에서 새벽 조반을 했다. 작은집은 그 옆에 살았는데, 큰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밥을 먹으려고 큰집에 가는 사람을 잡아갔다. 사람을 잡아서 반은 먹고 반은 남겨 두었다. 가족들이 남은 반을 그 곳에 묻으니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서 파는 것이었다. 화가 난 식구들은 다른 호랑이를 잡아서 그 곳에 묻었다. 그 이후, 호랑이가 그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곳이 ‘호랑봉’이라 불려졌다.

옛날, 이곳에 김서방네가 살았다. 위에 있는 절에서 주인이 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며 김서방네를 내쫓았다. 김서방이 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해보려고 절에 올라가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물어갔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부인이 늑대를 쫓아가니 호랑이가 늑대에게도 덤벼서 이번에는 호랑이가 김서방을 물어다 깊은 곳에 갖다 놓으니, 이후에는 늑대가 얼씬 못했다고 한다.

(3) 마을의 지명 유래

1) 신선봉(神仙峰 불무산): 불무산을 소회산리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자세한 내용은 대회산리 지명유래 참조)

2) 개죽음굴: 불무산 안에 굴이 있는데, 그곳을 개죽음굴이라고 한다. 개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 은장산(銀藏山): 대회산리 남쪽 하동에 위치한 산으로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와 소회산리의 경계를 이룬다.(자세한 사항은 대회산리 지명 유래 참조)

4) 절골(절터): 학교터를 절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폐교되었지만 예전에는 대회산 국민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그 곳에 절이 없지만 예전에는 대회산 국민학교 쪽에 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골, 절터라고 부르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대회산리 지명 유래 참조)

35) 소회산리의 제보자들은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기존의 문헌 자료로 대체한다. 이하의 내용은 이근영·이병찬, 『포천의 설화』(포천문화원, 2000.)에서 발췌하였다.

5) 매봉재: 매봉재를 마을사람들은 봉우라지라고 불렀다. 옛날에 매사냥을 했을 때 이곳에서 매를 많이 날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 종자루 고개(동자리 고개): 건너말에서 문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소회산리 동쪽에 있다고 하여서이고 또한 산마루턱에 서낭당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종자루 고개로 많이 불리었으나 지금은 주로 동자리 고개라고 부른다.

7) 피작고개: 동산말에서 대회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8) 촌말: 옛날에는 소회산리 전체를 ‘촌(村)말’이라고 불렀다. 매우 깊은 산골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9) 양지말: 양지 바른 마을이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지금 소회산리는 양지마을이다. 그 전에는 양지편이라고 불렀다.

10) 건너말: 안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1) 동산말: 양지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동산말이 되었다고 한다.

12) 안말: 동산말 북쪽 안에 있는 마을이다. 여러 마을의 한 복판에 있는 부락이어서 붙여진 이름 이라고 한다.

13) 노개미골: 매봉재 밑에 있는 골짜기로 노씨네가 제일 먼저 정착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노가골이 변음된 것으로 생각된다.

14) 뒷골: 양지말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 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어서 뒷골이 되었다.

15) 쇠돌구덩이: 동산말 서쪽 금장산에 있는 골짜기로 쇠를 캔 구덩이가 있다고 하여 쇠돌구덩이가 되었다.

16) 승지골: 동산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승지골은 예전에 벼슬아치가 살아서 부르는 명칭이다.

17) 안장골: 동산말 서쪽 금장산에 있는 골짜기로 안장바위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18) 앞골: 뒷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골 앞에 있어서 앞골이 되었다고 한다.

19) 오리나무골: 승지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리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오리나무골이 되었다.

20) 훌썩골: 소회산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21) 뗏소: 뗏소는 왜정 때 장작 같은 것을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서 뗏소라고 불렀다.

22) 검정여울: 검정여울은 땅이 검정색이고 물이 얇게 흘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은 검정여울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그림 40 장마철 불어난 검정여울의 모습

23) 삼밭소: 소 옆에 강바닥 흙과 장마철에 밀려 쌓인 모래가 뒤섞여 물이 차오르지 않은 곳에 삼을 재배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삼밭소라는 소는 운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이다. 삼밭소 밑에가 뗏소, 그 다음 밑으로는 검정여울이며, 검정여울 밑에는 갯바위, 갯바위 밑으로 가면 무당소이다. 검정여울 위에는 굳은여울이라고 한다.

24) 선바위: 안말 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아주 큰 바위가 우뚝하게 서있어서 선바위가 되었다. 예전에는 소회산리 마을사람들이 선바위에서 마을제사를 지냈다.

25) 안장바위: 동산말 서쪽 금장산에 있는 바위로 말안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6) 중빠진소: 양지말 동북쪽에 있는 소(沼)로 여름에 중이 목욕을 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27) 뗏마루: 검정여울 반대편이 뗏마루이다.

28) 갯바위: 바위가 갯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림 41 장마철 불어난 물속에 킁킁 숨은 갯바위

29) 소회산 저수지: 동산말 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소회산리라는 리(里) 명칭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소회산 저수지는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69년에 착공하여 1971년에 준공하였다.



그림 42 소회산 저수지

30) 멍우리 협곡: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 한탄강을 따라 발달한 현무암 협곡이다. 제보에 따르면 돌도 검고, 바닥도 검고 사람 다니기가 불편해서 멍이 자주 들기 때문에 멍우리 협곡이라고도 한다.(자세한 사항은 중리 지명유래 참조.)



그림 43 멍우리 협곡

31) 당고개(서낭당고개): 서낭당이 있던 고개. 과거에 서낭당이 있어서 불린 이름이다.

32) 돼지우물: 돼지우물은 산에서 물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데, 지금도 겨울에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물을 먹는다.

33) 바위웅덩 : 안말 서북쪽에 있는 웅덩이다. 바위가 깔려 있는 웅덩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옛날에 호랑이가 한 여인을 이 바위에서 잡아먹고 웅덩이만 남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34) 소개울: 소회산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작은 개울이 있는데, 그곳을 소개울이라고 한다.

35) 뱃가리소(화적연): 영북면 자일리에 위치한 뱃가리소는 소회산리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곳이다. 제보에 따르면 뱃가리소에서 예전에 기우제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낸 후 물싸움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일종의 축제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로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렸었다고 한다. 이것은 제보자(이옥선)의 실제 경험담이다.(자세한 내용은 자일리편 참조)

36) 용탕: 뱃가리소 앞을 용탕이라고 하는데, 명주 한 꾸러미 하나가 다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깊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돌로 다 메워졌다. 이곳은 예전에 용이 살아서 용탕이라고 하고, 그 넓은 바위에 용 발자국이 찍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을 끌고 간 자국도 있다. 용탕은 넓은 가운데가 아니고 바위 옆으로 조그맣게 있다.

37) 의병떠러지: 명우리 협곡의 뒤편에 위치한 절벽. 구한말 시대에 어떤 의병이 왜병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이곳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라 할 수 있다.



그림 44 명우리협곡의 절벽 뒤 의병떠러지

38) 비석거리: 마을 안에 비석이 많이 있어서 비석거리라고 했다.

39) 당너머: 서낭당 너머에 있는 조그만 들이다. 서낭당 너머에 있어서 당너머라 부르게 되었다.³⁶⁾

40) 만논: 양지말 앞에 있는 골논 고래이다.

41) 상나무밑: 동산말 앞에 있는 밭들이다. 상나무(향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42) 거란지: 용마골 동쪽에 있는 산이다.

43) 거는골: 거란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6) 이하의 내용은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편, 2006.)에서 발췌하였다.

44) 되릉소: 중 빠진소 밑에 있는 소(沼)이다. 뒷박같이 둥글게 생기고 작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 된다.

45) 둥글배미: 당너머에 있는 논이다. 둥그렇게 생겼다고 하여 둥글배미가 되었다.

46) 뒷골고개: 양지말에서 뒷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뒷골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7) 살여울: 뒷골 동북쪽에 있는 여울이다. 살(나무로 엮은 발로 물고기를 잡는 도구)을 놓아 고기를 잡던 여울이라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이곳 아래쪽에 있는 여울을 하살여울이라고 부른다.

48) 소빠진소: 삼밭소 위에 있는 소(沼)이다. 옛날에 소가 이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마을의 6.25 경험담

1)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6.25전쟁 때 철원에서 전쟁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미군들 천막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그랬다. 제보자의 아버지는 전쟁 나기 전에 이미 이남으로 도망을 쳤는데, 인민군들이 만날 집에 밤낮없이 쳐들어와서 “아버지 어디 갔냐?”, “아버지 언제 돌아 오냐?” 매일 물어봤다고 한다.

인민군들이 민간에다가 인민군들 신기려고 버선이나 장갑, 신발 이런 것을 숨겨놓기 일수였다. 또한 인민군들은 민간인들한테 “더덕을 캐 와라, 도라지를 캐 와라.” 하면서 시키기도 했다. 그런 이유인 즉,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공군들도 민간인들이랑 같이 살았다고 한다. 소회산리는 군국과 인민군들이 3번을 밀고 들어왔다 나갔다가 했다. 그 시절에 많은 국군뿐만 아니라 인민군, 중공군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

중공군들은 식량을 미숫가루로 매달고 다니고, 전부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들어왔는데, 무기도 방망이수류탄 한 개씩 들고 5명에 1명꼴로 총 하나씩 있었다. 소회산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인해전술 수법으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중공군들이 나팔만 불면 운다는 속설이 있었다.

2) 안성구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인민군들은 북쪽으로 피난을 가라고 하고, 국군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고 혼동을 주었다. 제보자가 겪은 전쟁 당일인 1950년 6월 25일에는 비가 엄청 쏟아져서 전쟁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워낙 빗소리가 강하고, 하늘이 천둥번개를 쳤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침에 산정리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가마소개울이 있는데, 그 곳에 인민군들이 딱 차 있어서 의아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민군이 남쪽으로 쳐들어간다고 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을 해줬다고 한다. 어느 날, 대회산국민학교에 벽보판을 붙이더니 ‘오늘은 의정부를 갔다, 오늘은 양주를 갔다, 오늘은 수원을 갔다’ 하면서 한반도 지도에 점을 찍었다고 한다.

그 당시 국군은 몰라도 인민군들은 천막이라는 것이 없어서 가정집으로 다 들어가서 안방, 윗방, 마루를 다 차지하고 지냈다. 끼니는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급소에서 보급 받아 자신들이 음식을 다 해먹었다.

소회산리에서는 전쟁에 죽은 사람도 많을뿐더러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은 더 많다. 인민군 밀려서 올라갈 때 철원으로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도 가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한다.

3.2.7. 영북면 대회산리(大回山里)

<제보자>

최남규(53) 이곳에서 출생. 80년대 이후에 정착.

전석배(77): 마을 토박이

전천배(71): 마을 토박이



(1) 유래 및 생활

1) 유래

대회산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때문에 이곳에 오려면 산을 끼고 사이로 들어와야 한다. 대회산리라는 지명은 이처럼 산 사이로 돌아 돌아서 오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대회산리는 위쪽에 불무산이 있고, 불무산을 북쪽으로 가정하고 봤을 때, 동쪽은 금장산, 서쪽은 무등산이며, 남쪽은 한탄강이다. 즉 불무산-금장산-무등산-한탄강으로 둘러 쌓인 곳이 바로 대회산리이다. 많이 알려진 비둘기낭 폭포는 무등산의 산등성이와 대회산리 사이를 따라 흐르는 개울이 폭포가 된 곳으로, 비둘기낭 폭포로 떨어진 물은 다시 2,300m 흐르다가 한탄강과 만난다.

2) 마을의 생활

① 한탄강과 대회산리: 고석정을 지난 한탄강은 흐르는 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는 포천

시 관인면 냉정리 → 사정리 → 중리를, 왼쪽으로는 철원읍 갈말읍 군탄리와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 대회산리 → 운산리를 끼고 아래로 흘러간다.

대회산리는 소회산리의 명우리 협곡(소회산리)을 지난 한탄강이 비둘기낭 폭포와 합수되는 지역으로 비둘기낭 폭포와 독바위(합수지점)-보름소-두명소와 같은 명승지를 품고 있다. 두명소를 지난 한탄강은 중리와 운산리의 경계 지역인 곧은여울로 흘러간다.

② 대회산리의 구성: 과거 대회산리는 상동과 하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동은 현재의 대회산리 1반으로 불무산 쪽에 근접해 있고, 하동은 상동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현재 비둘기낭 폭포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하동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골이라 불렸다. 현재 절은 모두 소실되고 절터도 남아 있지 않다.

③ 대회산리의 마을제사: 대회산리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상동과 하동이 각각 산신제를 지냈다. 대회산리 산신제는 음력 9월 9일 대회산리 상동 마을에서는 불무산(佛舞山) 자락의 제단에서, 절골 마을에서는 금장산 중턱에서 각각의 산신령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공동으로 지내던 제사이다. 대회산리(大回山里)는 주변에 불무산, 종자산, 보장산(寶藏山), 은장산(銀藏山) 등 ‘큰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연 마을은 상동 마을·중동 마을·하동(절골) 마을 등으로 구분되며, 상동 마을과 절골 마을에서 별도로 산제사를 지내 왔다.

절차는 상동 마을에서는 산제사를 앞두고 제관(祭官) 2명을 뽑고, 제주(祭酒)로 쓸 조라술을 준비하였다. 제일(祭日)은 음력 9월 9일이며, 제물로는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과실, 떡(백설기), 밥, 막걸리 등을 마련하였다. 불무산 자락인 마을 뒷산에 마련된 제단에 도착하려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부녀자도 희망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었다. 산제사에 드는 비용은 각 가정마다 일정액씩 걷는 방법으로 충당하였다.

절골 마을에서는 마을 뒷산인 금장산(또는 원장산) 중턱에서 산제사를 올렸다. 제일은 음력 9월 9일이며, 음식 장만이나 비용 추렴 등은 상동 마을의 산제사와 비슷하다.

현재 상동 마을의 산제사는 맥이 끊겼다. 원주민은 점차 도시로 떠나고, 지금은 세 집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외는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주민들 간에 산제사에 대한 무관심 및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산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절골 마을에서는 지금도 산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예전처럼 마을 전체의 행사가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몇 집만이 모여 치르는 정도로 축소되었다.³⁷⁾

한편, 대회산리에서는 지금의 망월동(보름이) 앞 한탄강가에 위치한 두명소에서 살아있는 개를 가져가 죽여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2) 설화

1) 무당산 전설: 매우 용한 용씨네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무당이 되는 꿈(신몽, 신내림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이렇다. 어느 날 꿈에 무당산에 가서 징과 장구를 가져와

3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대회산리 산신제 (『한국 세시 풍속 사전』(국립 민속 박물관, 2004.) 답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제보된 바 있으나, 구연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출처 및 경로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탄강을 건너가야 했다. 그러나 강물이 하도 험하고 세서 남편이 죽으려고 가냐며 말렸다. 그러나 용씨네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넜다. 건너는 중에 갑자기 강물이 갈라져서 무당산에 있는 징과 장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후 매우 용한 무당이 되어 대회산리에서 살았다고 한다. 제보자의 나이가 71세인데도 용씨네를 못하고 부모 세대로부터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부모 세대는 용씨네를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용씨네는 일제 강점기 이전의 용한 무당으로 추정된다.

(3) 지명유래

1) 은장산(은장산): 대회산리 남쪽 하동에 위치한 산으로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와 소회산리의 경계를 이룬다. 마을을 사이에 두고 비둘기낭 폭포 맞은편에 있으며 아래로는 한탄강이 흐른다. 원래는 금정산(金井山)이었는데, 산에서 은이 생산되어 은정산(銀井山)으로 불리다가 다시 은장산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회산리의 제보(이옥선) 중에는 소회산리 쪽은 금정산이며, 절골 있는 쪽에서부터 은장산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명 유래에 걸맞게 이곳에는 과거 은을 캐던 광산이 있었다고 한다. 하동사람들이 이곳에서 9월 9일 산제를 지냈다. 수리가 많이 서식했다고 해서 달리 수리봉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포천에 소재한 다른 유명한 산들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다.³⁸⁾



그림 46 비둘기낭 폭포 쪽에서 바라본 은장산의 전경

38) 은장산의 동남쪽에는 수목이 울창하고 덩굴 식물들이 엉기어 곰 같은 큰 동물들이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하여 ‘곰덩굴’이라고도 불린 불무산이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비둘기낭 폭포가 있다. 한탄강이 북쪽에서부터 산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감돌아 임진강으로 흐른다. 은장산 서북쪽에는 은골이 있고, 서남쪽에는 절골이 있다. 은골은 은장산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며, 절골에는 원래 큰 규모의 절이 있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그림 47 은장산 등산로 입구

2) 불무산: 대회산리 위쪽에 위치한 산으로, 맞은편은 영북면 국도이다. 이 산마루는 평평한 분지로 되어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하늘에서 신선이 자주 내려와서 놀다갔다고 한다. 신선봉이라고도 하고 불무산(佛舞山)이라고도 하는 이유이다. 과거에는 신선(神仙)과 부처(佛)가 서로 통하였다. 제보에 따르면 이곳에는 원래 곰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곰동굴산, 또는 곰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침덩굴이 많아 곰덩굴(곰동굴)로도 불렸다 한다. 대회산리(大回山里)와 소회산리(小回山里)는 모두 산에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뜻인데,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 중 가장 크고 험준한 산이 바로 불무산이다. 전설에 따르면 불무산 위에 배를 매어놓았던 자리(배말뚝)가 있다고 한다. 옛말에 따르면 정상에 올라가면 맑은 날에는 남대문이 보였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전적지인 백마고지는 이곳에서 보인다.³⁹⁾



그림 48 대회산리와 소회산리를 잇고 야미리를 경계로 하는 불무산

3) 보름이(리)(망월동): 무등산 줄기를 중심으로 대회산리 주 마을, 즉 비둘기낭 폭포에서 무등산 줄기 맞은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보름밖에 살지 못할 정도로 척박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며, 과거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⁴⁰⁾

39)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663m). 대회산리와 소회산리 동쪽을 남북으로 가로막고 서 있고, 야미리와 경계를 이룬다. '신선이 춤을 추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여 지역 이름을 대회산(大回山) · 소회산(小回山)이라 할 만큼 산악지대이다. 수목이 울창하고 덩굴식물들이 엉기어 곰과 같은 큰 동물들이 덩굴에 걸려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다 하여 '곰덩굴'이라고도 불려질 만큼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험준한 산이다. 북쪽에서 서류하는한탄강이 서쪽으로 감돌아 들어 은장산(銀藏山) · 불무산 기슭을 흘러 멀리 임진강으로 들어간다. 『여지도서』에 "불곡산(佛谷山)은 영평현 고을 뒤 주산이다."라고 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불곡산은 양주목 북쪽 3리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동여지도』 등에 "불곡산은 창수면 오가리, 영중면 영평리에 있다."라는 표기로 볼 때 불무산의 옛 이름이 불곡산으로 추정된다. 『조선지형도』에서 불무산은 영북면 야미리와 대회산리에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은장산(456m)은 소회산리와 대회산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로 금과 은이 묻혔다 하여 금장산으로도 불린다. 『동국지도』에는 금장산(金藏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금장산은 영평현 북쪽20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2008. 참조.

40) 보름리 유적: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한탄강 용암 대지와 현무암 협곡의 구석기 및 신석기 유적이다. 한탄강-임진강 유역의 잦은 홍수 피해를 줄이고자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 서울 대학교 박물관의 '한탄강 댐 수몰 지역 문화재 지표 조사', 2007년 고려 문화재 연구원-연세 대학교 박물관-한양 대학교 문화재 연구소의 '한탄강 홍수 조절댐 건설 사업 문화재 지표 조사' 이후 변동 사항 확인 조사를 통하여 총 37개 지역의 문화재 유존 지역이 발견되어 조사를 실시했으며 9개 지역의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유적은 구석기 시대 석기 유물로 후기 구석기

4) 무등산: 대회산리에서 한탄강 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 편에 위치한 산으로 보름리와 대회산리의 경계를 이룬다.



그림 49 무등산

5) 용마골: 현 대회산리 마을회관의 맞은 편 금장산의 끝자락에 깊은 골이 있는데 이곳을 용마골이라 불렀다. 물의 수량에 따라 계곡물이 흐르기도 한다. 용이 승천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곳이다.

6) 황송: 달리 왕소나무라고도 불린다. 상동의 아래쪽 개울물가에 위치해 있다. 수령이 500년도 더 된 고송으로 과거에는 경기도 지정목이었다. 그러나 시름시름 앓다가 20여 년 전에 말라 죽었고, 그나마도 최근에 불에 타서 형체만 남아 있다. 과거에는 이곳에 무당이 와서 치성을 드리는 영험한 나무였는데 나무가 불에 탄 이유도 무당이 치성 드리다가 불이 옮겨 붙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나무에 변이 생기면 나라에도 변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무가 앓기 시작했을 때 전쟁이 났다고 한다. 황송 앞에서 매년 9월 9일이면 마을 곳을 지내기도 했으나 나무가 죽은 이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림 50 불에 타 형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황송. 뒤쪽의 산이 불무산이다.

시대에 해당되며 사정리 유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국가 시대 주거지 유적이 출토되었다. 한탄강 일원에서 출토된 유물은 약 2만 점 이상이며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커 향후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한탄강의 선사문화 참조)

7) 비둘기낭 폭포: 무등산의 골짜기에 있는 폭포이다. 비둘기낭 폭포에서 떨어진 물은 약 2,300m 가량 흐르다 한탄강과 합류하게 된다. 폭포수 뒤에 있는 동굴에서 백비둘기들이 새끼를 치며 서식하였기 때문에 비둘기낭이 라고 부르게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비둘기가 이곳에 많이 서식했었다고 하며, 비둘기 외에도 동굴마다 뱀들이 많았다고 한다. 원래 폭포 아래의 소는 매우 깊었는데, 지금은 얕아진 것이라 한다. 무당들이 치성을 드리기도 했으며, 폭포 옆의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은 약수라서, 제보에 따르면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부스럼과 같은 피부병이 일주일 내에 나았다고 한다. 예전에 제보자(전석배)의 아버지가 비둘기낭 폭포로 내려가는데 한 2/3 부근에서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더니 30m쯤 되는 지붕의 용마루처럼 크고 굽은 지네가 획 하고 지나가더니 비둘기낭 폭포 안쪽 동굴로 들어갔다. 제보자의 아버지는 무서워서 얼른 올라왔다고 한다.



그림 51 비둘기낭 폭포, 폭포의 오른 쪽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약수이다.

8) 보름소: 보름이 앞 한탄강 가에 위치한 소. 물이 매우 깊다고 한다.

9) 두명소: 보름소 아래에 위치한 소.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소를 메어두고 있으면 이시미(이무기)가 소를 물어갔다고 한다.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를 지낼 때 산개를 가져다가 죽였다. 한 번은 일제 강점기 때 잠수부들이 얼마나 깊은가 들어가 봤는데 큰 굴이 있고 큰 물고기가 있어서 깊이를 재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잠수부가 말하길 “내가 깊은 곳이란 곳은 다 다녀봤어도 그렇게 깊은 곳은 처음 봤다”고 한다.

10) 독바위: 보름이(보르미) 서북쪽 한탄강에 있는 바위로, 비둘기낭 폭포에서 흐른 물이

한탄강과 합수되는 부근에 있는 큰 바위이다. 독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며 한탄강 쪽으로 튀어 나와 있다. 그 앞의 소를 독바위소라 하는데 이곳 역시 매우 깊다고 한다. 독바위를 넘으면 큰 장마가 졌다는 속설이 있고, 옛 나루터가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그림 52 장마로 물이 불어나 독바위가 물에 잠겼다.

11) 물레방아소: 명우리 협곡 아래쪽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물레방아는 없어졌다.

12) 신계바위: 물레방아소 부근에 있던 바위. 큰 차돌바위였으나 소수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대부분 깨졌다고 한다. 인민학교 시절 소풍을 가던 곳이었을 정도로 경치가 좋았다.

13) 명우리 협곡: 아래쪽에 물레방아소가 있다. 독바위 - 1.5km 아래로 가면 보름소 - 보름소 밑에 두멍소 - 두멍소 바로 아래 배터(중리)가 있었다.

14) 배터: 독바위와 보름소 사이에 위치한다.

15) 곧은여울: 운산리 쪽으로 올라가 있는 한탄강을 부르던 이름으로, 이곳에 배터가 있었다고 한다.

16) 무당산: 대회산리에서 한탄강 건너 편에 위치한 산이다. 금장산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용씨네(용신네)가 살던 곳으로 용씨네의 선조 무덤에서 돌로 된 손가락 등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림 53 대회산리에서 바라본 무당산.

17) 씨아고불테기: 과거로부터 대회산리에서 소회산리로 넘어가는 고개(피자고개)를 넘어 다니던 길이다. 일제 강점기 때 확장되었다. 길이 꼬불꼬불한데, 특히 안쪽으로 쏙 들어간 지점을 씨아고불테기라고 불렀다.

18) 범바위: 대회산리에서 78번국도 쪽으로 나가는 고개의 입구, 선마지에 있던 바위이다.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을 죽인 후 해골을 놓은 바위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며, 또는 소를 잡아먹고 소뼈만 놓았다고도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미군의 도로 공사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고, 현재는 이 옆으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호랑이가 이곳에 앉아서 사람을 노려보았다고 해서 범바위라고 불린다고 한다.



그림 54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범바위

19) 선마지: 대회산리에서 78번 국도 쪽으로 나가는 고개 사이를 흐르는 개울로 지금은 대부분 메워졌다. 그림 103의 오른쪽에 선마지가 작은 개울 형태로 흐르고 있다.

20) 선마지: 대회산리에서 78번 국도 쪽으로 나가는 고개 사이를 흐르는 개울로 지금은 대부분 메워졌다. 그림 103의 오른쪽에 선마지가 작은 개울 형태로 흐르고 있다.⁴¹⁾

21) 가운데말, 절골: 상동 밑에 있는 마을이다. 상동과 하동 사이에 있어서 가운데 말이 되었고 옛날에 600여 평이나 되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하여 절골 이라고도 부르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 큰 절의 중이 마을에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 중을 때리며 못 살게 굴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김해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몹시 사납게 굴어서 화가 난 중은 김해김씨 문중의 묘에다 쇠막대기를 꽂고 3년 안에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 실제로 3년 안에 그 집안이 망하였으며 중은 어디론가 도망을 쳤고 김해 김씨 문중에서는 그 절을 모두 부수어 버렸다고 한다.

22) 윗말(上洞): 절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위쪽에 있는 부락이어서 윗말 또는 상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23) 은골, 음골, 말밀계: 절골 동북쪽에 있는 별판이다. 황무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별판이

41) 이하는 포천문화원, 『포천의 지명유래집』, 2006에서 발췌하였다.

다.

24) 건너들: 윗말 서쪽에 있는 들로 개울 건너에 있기 때문에 건너들이 되었다.

25) 곰동골: 앞개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6) 논골: 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논이 있기 때문에 논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27) 무란골: 윗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8) 선마지: 가운데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9) 백개골: 윗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0) 성재골: 가운데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이 있었다고 하여 성재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31) 승지골: 상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2) 툇밭골: 상동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툇밭같이 생긴 돌이 3개가 있어서 툇밭골이 되었다고 한다. 툇밭골의 변음으로 생각된다.

33) 토박골: 윗말에 있는 골짜기로 토질이 토박하여 곡식이 잘 안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4) 툇밭골개울: 툇밭골에 있는 개울로 골짜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35) 곰동골개울: 곰동골에 있는 개울로 골짜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36) 범바위: 선마지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또는 소도독놈이 소를 훔쳐가다가 뒤따라온 주인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호랑이가 죽은 소도독놈을 이 바위에서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37) 방골고개, 일단고개: 상동에서 창수면 오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숲이 울창하고 길이 좁아서 낮에도 밤과 같이 캄캄하다고 하여 방골고개라고 불렀으나 방골고개로 변음되었다. 또 이 고개가 가팔라서 자동차는 1단 기어로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하여 1단고개라고도 부른다.

38) 빨딱고개: 보르미에서 선마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매우 가팔라서 오르려면 숨이 헐떡거린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39) 새모기고개: 곰동골에서 문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새미기고개라고도 부른다.

40) 새뱃나루: 보르미에서 관인면 중리로 건너가는 나루터이다.

41) 서낭당고개: 절골에서 소회산리 촌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낭당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 6·25 경험담

* 현지조사에서 채록된 내용이 없다.

3.2.8. 창수면 운산리(雲山里)

<제보자>

정운교(58): 17년 전부터 거주, 현 이장.

임용호(79): 현 노인회장, 대대로 토박이.

왕임순(79): 마을 토박이



(1) 마을 유래 및 생활

1) 유래

원래는 설운리(이)였다고 한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쌓여서 운산 또는 설운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곳에 설운리라는 지명이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운산리로 개명했다고 한다. 또는 구름이 많다고 하여 운산리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운산리 마을사람들에 의

하면 한탄강의 유래는 맘대로 건널 수 없어서 한탄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2) 생활

과거에는 현 마을회관 아래쪽에 운산리 마을이 있었다. 댐이 들어서면서 수몰 지구에 해당이 되어 지금은 거주하지 않는다. 지금은 생태공원 조성 중이다. 과거 운산리 주민은 100여 가구가 넘었으나 지금은 2-30가구만 거주한다고 한다.

운산리는 주변에 산이 많고 옆으로는 한탄강이 흐르기 때문에 예부터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웠다. 농사를 짓기도 척박하여 힘겨운 삶을 살았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나무 한 짐씩 해야 학교 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이다. 특히 전쟁 때는 한탄강을 건너려는 유엔군과 저지하려는 인민군의 치열한 격전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인근의 산속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제보자(왕임순)에 따르면 전쟁 때 지금의 운산 2리, 즉, 도리연이 있는 곳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사람이 거의 안 살던 오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운산리는 현재 6반까지 있다. 과거의 지명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반: 뒤룡골 덕고개, 2반: 양짓말, 3반: 거래, 4반: 절골, 또는 뒷골, 5반: 광산골, 6반: 방골 이다.

(2) 설화

운산리에서 전해오는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²⁾

1) 풍수지리

누구에게나 쥐통이라는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 동네에 들어서면 쥐통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그 이유인즉 이러하다.

이 동네의 형세를 일러 사제형국이라 하는데 촛대봉 쪽은 뱀의 형국이요, 그 건너는 부엉이가 내려다보는 형국이요, 팽이산 쪽은 팽이 같은 형국이다. 그 안에서 서로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쥐라는 짐승이 가운데서 꿈쩍을 못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는 쥐통이 없는 것이다.

<○○○, 남, 창수면 운산리, 1998. 9. 24.> ⁴³⁾

2) 지게 위의 호랑이

양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가 머슴을 살다가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다. 그런데 호랑이가 지게 위에 ‘턱’하고 걸터 앉았다.

양푼이는 그것이 호랑이인 줄도 모르고 무엇이 걸쳐 있으니 돌아보지도 않고 양손으로 힘껏 잡고는 동네로 내려왔다.

그렇게 붙들고 집에 오자 사람들이

“야, 너 뒤에 무엇이 실렸는지 아니?”

하고 물었다. 양푼이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너 그거 놓치면 죽는다. 그게 호랑이란단다.”

42) 운산리의 제보자들은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기존의 문헌 자료로 대체한다. 이하의 내용은 이근영·이병찬, 『포천의 설화』(포천문화원, 2000.)에서 발췌하였다.

43) 이근영·이병찬, 『포천의 설화』, 포천문화원, 2000, 사건담

고 했다.

양푼이는 호랑이라는 말에 잡은 것을 놓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더욱 꼭 쥐었다. 이 때 사람들이 덤벼들어 호랑이를 때려 잡았다고 한다.

< ○○○, 78세, 남, 창수면 운산리, 1998. 9. 24. >

3. 지명유래

1) 도리연: 도루무시라고도 한다. 구라이개울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지 부근에 있다.

2) 배터거리: 영평천 쪽에 있다고 한다.

3) 덕고개: 오가리에서 운산리로 넘어오던 고개로, 현 운산 1반 지역이다.

4) 마산: 현 운산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산이며 마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산소를 썼다고 해서 마산이라고 했다.



그림 56 앞에 보이는 낮은 산이 마산이다.

5) 큰가마소: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구라이 개울에 위치한 소이다.

6) 작은가마소: 큰가마소 아래에 위치한 소이다.

7) 거무낭: 도리연 옆에 위치하며 검은골, 거무냉이라고도 한다. 제보자(왕임순)에 따르면 난리 때 아이들을 그 곳에 피신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8) 보장산: 운산리 앞 편에 위치한 산이다.⁴⁴⁾

9) 뒤룽골: 현 운산 1반 지역으로 덕고개라고도 하며, 오가리와 경계를 이룬다.

10) 양짓말: 현 운산 2반 지역이고 별이 잘 든다고 하여 양짓말이라고 부른다.

44) 이하의 내용은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편, 2006.)에서 발췌하였다.

11) 거래: 현 운산 3반 지역으로. 운산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운산리의 중심 지역으로 상점도 있고 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탄강을 끼고 있으며, 샛바위낭이 이곳에 있다.

12) 뒷골: 현 운산 4반 지역이다. 운산리 북쪽에 있으며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리 절골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소실되었다.

13) 광산골: 현 운산 5반 지역으로, 현재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 광산이 있었다고 한다. 광산골 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 맞은편이 광산이다.



그림 57 버스정류장에서 바라본 광산골의 모습

14) 방골: 운산 6반 지역. 대회산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운산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사방이 막힌 분지 형태로 우묵하여 흡사 가옥의 방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발음상의 문제로 이곳의 주민들 대부분은 밤골로 알고 있다.

15) 중방바위: 운산리 마을회관에서 도리연쪽으로 가는 구라이개울가에 있는 바위이다. 널찍하고 큰 바위라는 뜻이라고 한다.

16) 구라이개울: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으로 그 합수머리 부근에 도리연이 있다.

(4) 6·25 경험담

1) 할아버지의 6·25전쟁 이야기

제보자에 따르면 이곳은 해방 당시에 이북 땅이었다. 제보자는 당시 9살에서 14살까지 인민 치하에서 살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민간인을 동원하여 부역을 했는데, 집집마다 부역량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량을 채워야만 농사일을 할 수 있었다. 일례로 한 집에 남자가 세 명이면 세 명이 모두 부역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명이 한 달 간 세 명 몫의 부역을 하는 동안 남은 두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나마도 수확의 일정량을 인민 정부에 내고 나면 끼니를 잇기 힘들 정도였다. 또한 마을 밖을 벗어나려 하면 인민반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자유가 없었다.

2) 할머니의 6·25전쟁이야기

운산리는 과거 강을 사이에 두고 유엔군과 인민군이 격전을 벌인 지역이다. 실제로 오가리 배터거리에서부터 운산리 아래 도리연 부근까지 유엔군과 북한군이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군이 후퇴할 때 마을을 소각해서 인민군의 근거지를 없앴다고 하며, 반대로 인민군은 방공호를 다 파라고 부역을 시켜 고되게 살았다고 한다. 언젠가는 인민군이 밤에 밤나무에 불을 지르자 국군이 그 쪽으로 포를 집중해서 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또한 면장 이름을 모르면 첩자인가 의심하여 두드려 찼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이 격전지에서 어떻게 피난 생활을 했을까. 이는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구라이개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탄강의 지류인 구라이 개울에 큰 가마소와 작은 가마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큰 굴이 있었다. 다른 지역으로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고향에 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굴 속에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려고 했던 것인지 구라이 개울에 게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다. 사람들이 그 게를 잡아 식량으로 삼고자 굴 밖으로 나왔다가 국군에게 발각되어 모두 붙잡혔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포천 선단리까지 후송되어 문초를 받았는데,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몰래 도망쳐서 왕방산을 넘어 동두천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길을 돌려 낮에는 산에 숨고 밤에는 길을 걷는 고생 끝에 운산리로 돌아왔다고 한다.

3.2.9. 창수면 신흥리(新興里)



(1) 유래 및 생활⁴⁵⁾

1912년 행정구역으로 영평군(永平郡) 서면(西面) 지역이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서면(西面) 산내정리(山內井里), 고현리(高峴里), 조현리(鳥峴里)를 합병하여 새로 일어나라는 뜻으로 신흥리(新興里)라 하고 포천군 창수면에 편입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 지역인 신흥리(新興里) 전역이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가 6.25 때 실지(失地)를 회복하여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이 이양되었다. 지금은 신흥리(新興里) 전체가 군에 징발(徵發)되어 주민이 살지 않는 법정리(法定里)로 존재하고 있다.

(2) 창수면의 개관

창수면은 조선시대 영평현 남면(南面)이었다가,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시 영평현이 포천군으로 병합됨에 따라 포천군 예하에 있다가, 1896년(고종 33) 영평이 다시 분리되어 영평군에 소속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부,군,면을 폐합함에 따라 영평군의 서면, 남면, 하리면을 병합하여 포천군 창수면이 되었다. 추동리(楸洞里), 주원리(注院里), 가양리(可養里), 오가리(伍佳里), 고소성리(姑蘇城里), 운산리(雲山里), 신흥리(新興里) 등 7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면사무소는 고소성리에 두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주원리의 일부와 오가리, 고소성리, 운산리, 신흥리가 38선 이북의 북한 통치하에 들어감에 따라 38선 이남 지역인 주원리 일부와 추동리, 가양리

45) 현재 군부대 지역으로 민가가 없기 때문에 문헌으로 대체함.

만을 관할하고 면사무소를 추동리로 이전하였다.

6.25때 실지를 회복하고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정권이 회복되어 창수면 전역을 관할하게 되었으나 신흥리는 군작전 지역으로 군에 징발되었다. 1954년 면사무소를 추동리에서 주원리로 이전하였다.

창수면이라는 명칭은 남면에 서면과 하리면을 병합하면서 영평천의 푸르고 맑은 물이 면의 중앙인 창옥병(蒼玉屏) 연안으로 흐른다고 하여 명명되었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영중면, 영북면에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신북면, 서쪽으로는 연천군 청산면,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탄강을 경계로 관인면과 인접해 있다.

영평천은 면의 중앙을 서쪽으로 흘러 한탄강으로 합류하는데 이를 경계로 하여 강남·강북으로 구분된다. 강북은 보장산(寶藏山)을 주봉으로 하는 산지이고, 강남은 종현산의 줄기가 면내로 뻗어 내려 산악지대를 만들었다. 추동리에는 구릉이 형성되어 있고 영평천과 그 지류 유역에는 평지가 조성되어 경작지와 취락지로 이용되고 있다.

교통은 영평천 연안을 따라 37번 국도가 동서로 이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포천, 외북, 영평으로 이어지는 지방도와 고소성리로 통하는 지방도가 있으며 오가리, 관인, 철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다.

산업은 농업이 주업으로 쌀, 잡곡, 야채가 생산되며 특수작물로 약초를 재배하고 있다. 산간에는 잣나무, 밤나무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앞날이 기대되며 청둥오리사육, 육우목장, 양돈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주원리의 ‘중원종축장’은 시설과 수준이 세계적으로 양돈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주원리에 박순(朴淳), 이의건(李義健), 김수항(金壽恒)을 배향한 옥병서원(玉屏書院)이 있는데 중건 후 포천 유림들이 김성대(金聲大), 이화보(李和甫), 윤봉양(尹鳳陽)을 추배하였다.

또한 추동리에는 이지란(李芝蘭)을 배향한 청해사(靑海祠), 독립지사 조영원(趙永元)의 공적비,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고인돌이 있다. 고소성리에는 고려시대 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부녀자의 힘으로 축성되었다고 전해지는 고소성(姑蘇城)이 있다. 주원리 영평천변에는 영평팔경 중의 하나인 금수정과 창옥병의 명승지가 있으며 상추동에 있는 추동리 저수지는 낚시터로 이름 높다.⁴⁶⁾

(3) 지명 유래⁴⁷⁾

1) 고재, 고현, 고양리: 마네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탄강변의 마을로 한탄강은 깊이 폭 빠져 흐르고 마을은 덜렁 들러 높은 곳에 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2) 국사랭이: 산내정 부락 옆의 큰 마을. 국사봉 아래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꽃봉(花峯): 은골 동쪽에 있는 산과 마을이다. 마을 앞산이 꽃봉우리처럼 생겼고 봄이면 온 산이 진달래꽃으로 뒤덮혀, 산이름도 꽃봉이고 마을 이름도 꽃봉이다.

46) 포천시청 문화관광페이지>국가지정문화재, <http://tour.pcs21.net/>

47) 포천문화원 편, 『포천의 지명유래집』, 2006. 신흥리는 현재 군사적 목적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므로 기존의 문헌자료로 대체하였다.

4) 대두문동: 보장산 북쪽에 있는 두문동의 큰 마을이다. 지형이 앞은 한탄강 절벽이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으면서 길은 진입로와 아주 험한 고개 하나 뿐이다. 마치 외부와의 왕래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5) 버들골(柳洞): 고양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6) 새작골(鳥峴): 작은두문동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진입로 외에는 소두문동으로 넘어가는 아주 가파르고 높은 고개뿐이다.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새나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곳 같아 보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7) 산내정: 꽃봉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인근 부락은 모두 박우물이었는데 이 마을은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유독 두레박 우물을 팠다고 하여 지은 이름으로 생각된다.

8) 소두문동: 대두문동 서남쪽의 작은 마을이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지만 두문동에서는 작은 골짜기에 위치하므로 소두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9) 은골, 어은골: 국사랭이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은을 캐는 광산이 있었으므로 지은 이름이다.

10) 잣골: 새작골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말에 진천 송씨가 피난하였다고 한다. 유사시 안전성이 있는 성(城)에 비유하여 잣골의 변음으로 생각된다.

11) 삼거리들: 국사랭이 남쪽에 있는 조그만 들이다.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2) 방아다리: 삼거리들 서쪽에 있는 들이다.

13) 새논: 고재 북쪽에 있는 들이다. 새로 농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4) 샘계: 고재 서쪽에 있는 들이다. 샘이 많아서 지은 이름이다.

15) 수청벌(水淸坪): 신흥리에 있는 들이다. 면적이 수천 평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천벌의 변음으로 생각된다. 신흥리가 고향인 분의 말씀으로도 신흥리에는 많은 경작지가 있다고 한다.

16) 텃논: 고재에 있는 논들이다. 마을의 집과 바로 접해 있어서 텃논이 되었다.

17) 마탱이: 국사랭이 서쪽에 있는 들. 옛날 전쟁 마당터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 광산골: 삼거리들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광이 있었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 19) 국사봉: 국사랭이 뒤에 있는 산이다. 국사당이 있었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 20) 논골: 국사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논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21) 당도루: 고재에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산모퉁이다. 신당이 있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인데 당모 루의 변음으로 생각된다.
- 22) 뒷골: 새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초재 뒤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23) 아장골: 삼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24) 연못골: 두문동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연못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25) 옷나무골: 축동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옷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26) 와우형골(臥牛形谷): 보장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 27) 매방골: 고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28) 쟁강골: 새모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29) 축동말마네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축동을 끼고 있는 마을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30) 황새모루: 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황새처럼 생긴 모퉁이를 가지고 있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 31) 말죽은골: 마뎡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뎡이에서 전투를 할 때 말이 많이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32) 가마소: 은골 서쪽 한탄강에 있는 소이다. 모양이 가마처럼 생겨서 지은 이름이다.
- 33) 국사랭이고개: 국사랭이에서 산내정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 34) 금광: 산내정 앞이고 재인벌 끝으로 한탄강 절벽이다. 금광이 있었으므로 지어진 이름이다.
- 35) 등성이밭: 고재 서쪽 등성이에 있는 밭이다. 등성이에 있다고 하여 등성이밭이 되었다.

36) 마네: 국사랭이 서쪽에 있는 들의 끝으로 한탄강 독이다. 한탄강 독은 거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독의 경사가 완만하여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여서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 다. 늦은 언덕이라는 뜻의 만애(晩崖)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지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37) 만경대: 샘가에 있는 바위이다.

38) 말바위: 셋개우물 옆에 있는 바위이다. 모양이 말처럼 생겨서 지은 이름이다.

39) 배소: 등성이발 북쪽에 있는 소(沼)이다. 한탄강에 있으며 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40) 버들고개: 버들골에서 국사랭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버들골에서 넘는 고개라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41) 산내정고개, 초재: 산내정에서 새작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새작골에 초재라는 부락도 있다. 마을 이름을 따서 산내정고개, 초재고개라 하였고 또 초재는 깊은 산골이어서 주위가 모두 나무뿐인데 이 고개는 아주 얇고 풀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으로도 생각된다.

42) 상사나무, 빗장나무: 신흥리에 있는 나무이다. 두 그루가 서로 맞붙어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44) 셋개우물: 고재 앞에 있는 우물이다.

45) 연미정터(燕尾亭址): 당도루에 있는 정자터이다. 연미정이라는 정자의 터이다.

46) 옷물: 옷나무골에 있는 약물터이다. 이 약물은 옷오른 데 효험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7) 재여울: 산내정 서쪽 언덕 너머에 있는 여울이다. 언덕 너머에 있다고 하여 재여울이 되었다.

48) 재여울바위: 산내정 서쪽 언덕 너머에 있는 바위이다. 재여울에 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49) 아우라지 베개용암: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일대에 걸쳐 있는 베개모양의 옆으로 누운 용암바위로, 포천에서 지정한 한탄 8경 중 하나이다. 아우라지는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합수머리를 가리킨다.(자세한 내용은 전곡읍 신답리 지명 유래 참조)⁴⁸⁾

48)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답리와 경계에 있으며, 신답리 쪽에서 볼 때 그 절경이 온전히 드러난다. 더불어 신흥리는 군사적인 이유로 현재 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아우라지 베개용암에 대한 답사는 연천읍 신답리, 전곡읍 전곡리, 청산면 궁평리 등 연천군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답사와 관련된 서술은 연천군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신답리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림 59 아우라지 베개용암

(4) 6.25 경험담

* 현지조사에서 6.25 경험담을 들을 수 없었다.